



법원앞서示威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姜基勳씨 3년刑 확정

대법원 제1회 재판.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精神的 방조도 犯罪” 첫판례

精神의 방조도 犯罪인정.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유서대필·自殺명분제공 모두 인정 全民聯동선무원주장 후유증예상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還書대필 有罪근거와 파장

還書대필 有罪근거와 파장.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姜基勳씨 有罪확정

姜基勳씨 有罪확정. 유서대필 형외로 구속기소된 姜基勳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4일 대한법원 제1회 재판. 대법정에서 1차와 2차의 수형을 주장하며 법원앞서 시위를 벌였다.

제652호

사 102

1986. 7. 30. 목요일

검찰측 證據 뒤집을수 없다

「遺書대필, 有罪확정 근거와 파장」

검찰주장 뒤집을 증거 없다... 설명 변호인단 불복 UN에 提訴방침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유서대필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유서대필 증거는 뒤집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 불복 UN에 提訴방침을 선언했다.

변호인단은 유서대필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유서대필 증거는 뒤집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 불복 UN에 提訴방침을 선언했다.

변호인단은 유서대필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유서대필 증거는 뒤집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 불복 UN에 提訴방침을 선언했다.

遺書대필 사건日誌

- ▲ 3월 5일 7월 - 김복희씨 유서대필사건
- ▲ 5월 18일 - 검찰, 김씨의 유서대필사건에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5월 20일 - 검찰,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5월 26일 -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6월 21일 -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12월 5일 -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12월 20일 -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1월 30일 -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4월 21일 -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 ▲ 7월 21일 - 유서대필사건 유죄 판결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 권위 살린다”

강기훈씨 사건관련, 각계인사 2백13명 “합리적 재판 촉구” 예장 강기훈대책위도 지난 21일 목회자 금식기도회 가져



예장목회자 20여명은 기독교교회부년기념관에서 강기훈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21일 부터 23일까지 금식기도회를 가졌다.

정 전민선 사회부장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상고심 계류중에 있는 강기훈씨(정 전민선 총무부장)가 24일 상고심 판결(오류 1시 대법원 1호 법정)에 즈음해 지난 20일 아침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종교계·정계·학계 등의 지도급 인사 2백13명이 대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공정재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유서대필사건'의 귀추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도 지난 18일 유서대필사건 재판부인 대법원 3부 앞으로 공정한 합리적인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규 목사 등 종교계 36명을 비롯한 각계의 2백13명은 '강기훈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라 재하의 공개서한을 통해 "이 사건 재판은 결코 피고인 강기훈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우리사회의 양심과 양식의

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재판이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제출했던 그 많은 필적 증거들을 부정한 이유없이 모두 배척해버리고 아무리 보이도 결코 같이 보이지 않는 유서필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강경에만 의존한 것은 세인의 양심을 납득시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속출해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건전한 양심의 승리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법원의 공정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강기훈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회자 금식기도회가 21, 22일 한국교회 1백부년기념관에서 예장 강기훈사건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있었다.

목회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복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회예배에서 이명남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고종 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군사정권 하에서 이 정

당을 표명했다. 성령사를 통해 목회자들은 '김기철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국내외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며, 우리사회의 양심과 양심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재판이 사법부의 실추된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성명목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강기훈씨에 무죄판결을 내주시길 기도하며 교회와 더불어 대학 활동을 과 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사 102 7. 25

강기훈씨 유죄확정과 '사법 불신' 7.26

지난해 5월 본신자살한 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씨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이 24일 유죄를 선고했다.

'백골단'에 의한 강경대씨 타살이 불러온 연쇄 자살 정국 이후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 운동권의 도덕성'을 놓고 1년2개월 남짓 지속된 공방전은 이로써 법률적으로는 일단 공권력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대법원의 유죄선고가 있는 뒤 대학생들이 "강기훈은 무죄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이런 정경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착잡한 심경을 가누지 못했을 것이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법제도 아래서 국민들은 대법원의 최종심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럴 수 없다는 데 국민적 비극이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의 유죄 판결 이유를 들여보자.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글씨가 비슷하며, 김씨가 분신할 당시 강씨의 행적이 지극히 의심스러워 유서를 대필했을 가능성이 높고, 강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서와 유서필적이 같다고 한 차례 인정한 점 등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감정이 옳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씨의 유서대필 행위가 인정된다면 김씨의 자살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살행위에 도움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서글씨의 감정을 담당했던 김형영씨가 현재 뇌물감정 혐의로 구속돼 있으며, 거짓감정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접어두자. 재판부는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동일성의 비율'이라는 구체적 수치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가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한 감정결과를 일부 계산착오를 이유로 들어 일축할 수 있는 것인가? 검찰에 유리한 필적 비교는 육안으로도 뚜렷이 구별된다면, 변호인쪽에 유리한 필적은 감정을 거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면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법률심이라는 상고심의 일반관행을 벗어나 사실관계까지 심리를 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진실은 알 수 없다"고 유보했던 1심 판결과 비교할 때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두드러져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의 도덕성'이 걸린 매우 민감한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까지 철저히 심리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독립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할지 모르나, 이번 판결로 '도덕적 과산선고'를 받은 재야쪽의 시각은 다르다. 재판부가 물적증거와 여러 정황을 통해 유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다는 이미 유죄로 심증을 굳혀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찾아내 하나의 논리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한다. 재판부가 검찰의 유죄추론에는 적극 동조하면서도 강씨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기훈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강경대씨 타살사건 이후 위기에 몰린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해낸 정치적 음모"라며 "범죄자는 강씨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검찰과 법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가재는 재판'이라거나 진실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원이 '스스로에게 내린 사형선고'라는 주장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이 왜 사법부마저 불신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사법부에 대해 심각하게 권고한다.

독자의는 92.7.29 한겨레

대법원 형사3부가 지난 24일 강기훈씨에게 내린 상고심 선고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아무런 죄가 없는 젊은이를 법정에서 세운 검찰과 그에게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과연 몇몇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일까? 우리는 검찰의 거짓증거(국과수의 감정)와 재판부의 거짓 심증에 한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거짓감정을 해준 김형영(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필적감정을 토대로 한 재판부의 주관적 유죄심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있는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을 친형제 이상으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간다. 부모형제에게도 말할 할 일들을 동료들과 의논하며 해결점을 찾는 게 우리들의 관례이다. 그런데 본인의 장래문제를 부모형제에게 위임하지 않고 전민련 동지들에게 위임했다 해서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동료의 빈소에 늦게 나타나서 강기훈씨가 범인이라니 참으로 우스운 판결 내용이며 서글픈 세상이다. 나는 김기설씨가 수원민청련

강기훈씨 유죄판결은 잘못

수많은 김기설씨 글 증거채택은 '주관적 심증'

전민련에서 제시한 고 김기설씨의 수첩과 여러 방명록, 그리고 김기설씨가 썼던 수많은 글들은 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가? 재판부는 김기설씨가 평소 친했던 누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장례절차를 부모가 아닌 전민련 동지들에게 위임한 점과 그의 분신소식을 듣고 강기훈씨가 너무 침착했고 빈소에도 늦게 나타난 점을 들어 주관적 유죄심증라고 주장했다. 사회변혁을 위한 길을 걷고

창립대회에 와서 방명록에서 명한 그에게 필기구를 권했었고 그가 서명한 방명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중인으로 서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6공정권이 재야운동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려는, 사각본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본인의 주관적 심증을 굳히며 무고한 강기훈씨를 하루빨리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강효남 <수원민청련 위원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35-24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 결과

지난 달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45차 회기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제출한 한국인권 상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한국의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인권규약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특히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정부 질의 과정에서 "6-

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며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서 한국의 법·제도에 관해 △경찰에 의한 과잉단속 △국가 기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수사 목적으로 오랫동안 구금하는 것 △사형으로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한국대표들에게 "한국정부가 이런 점 등을 억제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떤 노력을 했는가' 라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인권규약에 가입한 시기는 지난 1990년으로서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인권규약 가입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대표로 참가했던 최영도, 천정배(대한변협), 박원순,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한국, 김경남 목사(교회협 인권위) 등은 참가보고서를 통해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정부답던 후의 최

"한국 인권침해 여전하다"

국가보안법, 전향제도 문제점 지적 인권규약에 맞는 국내법 개폐 절실

29선언 이후 인권문제가 해결되었고 양심수는 없을 뿐더러 한국인은 민주주의 아래 인권을 누리고 있다. "는 유국헌 법무부 인권과장과 박수길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한국정부 대표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의해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7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인권침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분단구조 등 국가보안법에 관한 사항으로 인한 제약은 유엔 인권헌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유엔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하다"면서 "굳이 보안법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 민간대표로 참가했던 천정배, 조용환 변호사에 의하면 유엔인권 이사들은 이밖에도 △인기부의 역할 △여성차별 극복방안을 위한 정부 정책 △노동단체의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교섭노조 문제 △고문에 관한 것 등 1백50여 가지의 질문을 했으며 특히 국보법과 사상검열제도에 관해서는 △국보법이 정하는 반국가 단체의 뜻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 신념과 의견·생각을 알고자 하서는 안되며 이들이 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지적도 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민간대표로 참가한 김경남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 인권위 사무국장)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규약가입을 한국국민들에게 알리기 위

중 논평에서 극히 이례적일 정도로 정부의 태도와 한국의 법제도 특히 국보법과 전향제도를 비판하고 정부가 다음 보고서에서 더 많은 사실과 발전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의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적·체계적으로 토론되는 국제회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민변과 교회협 대표들은 "한국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여 인권규약에 맞게 국내법과 관행을 정비·개선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모든 인권단체들에 대하여 국제인권 기구와 제도에 대한 연구와 이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이번 회의의 내용은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14] 1993년 2월 7일 (일요일) (4판) 한겨레

기독교단체 강기훈씨 석방촉구

김치기대통령에 탄원서 "정치상황으로 사법적 불이익 받아"

교회협의회·예수교장로회 인권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될 대로 "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처사였다"면서 "새정부 아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명을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강씨의 석방사면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위원장 이명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장 윤길수)도 지

년달 27일과 19일 각각 김 차기 대통령 앞으로 강씨에 대한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공평한 사법처리였다기보다 강경대처 타살 사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강씨에게 사법적인 불이익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대화합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강씨를 석방하고 사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강씨는 4대계 내려오는 기독교가장에서 지란 칠년으로 생명을 도구삼아 유서를 대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라며 "6공이 재야인 주세영과 맺은 가장 심각한 문제의 고리인 강씨사건에 대해 새정부의 과감한 조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씨의 어머니 나인 권태경씨도 지난달 18일 강씨의 석방 및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김 차기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권씨는 서신에서 "아들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아들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주고 만일 본인의 앞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철저한 재조사를 해 민천하여 흑백을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30%

1993年5月27日 木曜日 刊

釋誕日千二百45명 告석방

任鍾哲씨 등 공안사범 38명 포함

大邱大 교수회

1993年5月27日 木曜日 刊

대통령이 이끈 6공화국 5년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낱말은 '공안통치'일 것이다. 13대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깨뜨리고 집권세력이 주도권을 되찾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안통치는 평화적 민족통일 운동은 물론이고 민주화투쟁을 옥죄고 탄압했다. '공안'의 석사술 아래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많고, 5공 때보다 훨씬 많은 양심수가 생겼다.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6공 공안통치의 대표적 피해자의 사람으로 옛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91년 봄 서울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주었다'는 혐의로 자살방조죄,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1년반이 넘게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정권 인수인계를 앞두고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논의가 한창인 요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강기훈씨가 자칫하면 풀려나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하는 쪽은 부모와 친지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걱정을 대변하듯,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강기훈씨를 석방·사면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고, 다른 기독교 단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보냈다.

강기훈씨를 석방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김영삼 당선자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종교인들이 김 당선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여차피 권력이 이양되는 시점에서 석방이나 사면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사람이 바로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

하면서, 입기를 마치기 전에 노 대통령이 직접 강기훈씨를 석방하고 사면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마지막 정리로써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이렇다.

강기훈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은 명확한 증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막연한 것이었다. 전민련을 비롯해서 양심적인 법조인과 종교인들이 검찰의 '대필'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강씨의 필적을 제시하고 외국의 권위있는 필적감정가까지 동원했지만, 검찰은 거짓감정으로 구속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감정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내세웠다. 그리고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검찰 증거만을 인정했다.

우리는 강씨를 기소하면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범죄 일시와 장소도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 발표문을 쓰려니 부끄러워 사표를 쓰고싶은 심정이다." 또 당시 강씨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온갖 자료를 모았던 이석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강기훈씨의 편지필적과 김기설씨의 유서필적이 같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6공의 해는 저물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권이 '6공 2기'인지 '7공'인지는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아야겠지만, 노 대통령은 뒷날의 평가에 대비해서라도 강기훈씨를 석방하는 일을 망설이지 말기 바란다. 그를 밝은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6공 공안통치의 부끄러운 곳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여길 이유는 없다. 그것은 후임자가 잔치에서 베푸는 선심보다 훨씬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해석될 것이다.

강기훈씨를 밝은 세상으로

“사설” 93. 5. 9. 한겨레

노태우 대통령이 이끈 6공화국 5년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낱말은 '공안통치'일 것이다. 13대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깨뜨리고 집권세력이 주도권을 되찾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안통치는 평화적 민족통일 운동은 물론이고 민주화투쟁을 옥죄고 탄압했다. '공안'의 석사술 아래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많고, 5공 때보다 훨씬 많은 양심수가 생겼다.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6공 공안통치의 대표적 피해자의 사람으로 옛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91년 봄 서울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주었다'는 혐의로 자살방조죄,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1년반이 넘게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정권 인수인계를 앞두고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논의가 한창인 요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강기훈씨가 자칫하면 풀려나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하는 쪽은 부모와 친지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걱정을 대변하듯,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강기훈씨를 석방·사면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고, 다른 기독교 단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보냈다.

강기훈씨를 석방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김영삼 당선자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종교인들이 김 당선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여차피 권력이 이양되는 시점에서 석방이나 사면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사람이 바로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

하면서, 입기를 마치기 전에 노 대통령이 직접 강기훈씨를 석방하고 사면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마지막 정리로써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이렇다.

강기훈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은 명확한 증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막연한 것이었다. 전민련을 비롯해서 양심적인 법조인과 종교인들이 검찰의 '대필'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강씨의 필적을 제시하고 외국의 권위있는 필적감정가까지 동원했지만, 검찰은 거짓감정으로 구속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감정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내세웠다. 그리고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검찰 증거만을 인정했다.

우리는 강씨를 기소하면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범죄 일시와 장소도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 발표문을 쓰려니 부끄러워 사표를 쓰고싶은 심정이다." 또 당시 강씨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온갖 자료를 모았던 이석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강기훈씨의 편지필적과 김기설씨의 유서필적이 같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6공의 해는 저물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권이 '6공 2기'인지 '7공'인지는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아야겠지만, 노 대통령은 뒷날의 평가에 대비해서라도 강기훈씨를 석방하는 일을 망설이지 말기 바란다. 그를 밝은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6공 공안통치의 부끄러운 곳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여길 이유는 없다. 그것은 후임자가 잔치에서 베푸는 선심보다 훨씬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해석될 것이다.

□ 강기훈씨 어머니가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억울한 옥살이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 드립니다.
저는 '유서대필'의 누명을 쓰고 1년9개월째 징역을 살고 있는 강기훈의 어머니입니다.
32년 만에 문민정부가 회복되었다고,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 왔다고 모든 국민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요즈음 저 역시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보도들을 접하면서 새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오랜 야망성찰로 수없는 고난을 겪으신 대통령이기에 당연히 모든 것을 꺾지기로 되풀러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니다.
대사면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 두달여 동안 실로 하루가 천년같이 가슴 설레며 기다려 왔습니니다. 그런데 우리 기훈이는 제외되었나니 이제 웬말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총각법이나 가정파괴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사면해주신대라니 기훈이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총각법인가요. 빈 국가단체의 수괴인가요.
부신의 '백장이 자살 방조사건'(동아일보 93년 2월12일 21면) 피의자가 한소상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보고 다시한번 기훈이에게 씌워진 자살방조죄는 순전히 '해바라기성' 편집사들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국악을 마시기도 하고 자식은 미시는 학, 상대방만 마시게 하여 죽게 만든 사람은 무죄가 선고되는 반면, 죽기 며칠전에 잠깐 얼굴을 대했을 뿐인 사람은 풍류를 죽게 했다는 자살방조죄로 유죄가 선고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날짜나 장소도 명기되지 않은 엉터리 공소장을 만들고, 또 그 공소장 그대로를 편들어준 검찰과 사법부의 형평을 읽은 행태는

군사정권에서나 먹혀들어가는 유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야에서 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처구니없는 죄의 굴레를 쓰게 되는 것이라든지, 파렴치법으로 매도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 "꿈은이 꿈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새 정치" 아래에서는 저 같이 이렇게 피눈물을 뿌리며 이러한 글을 쓰는 어머니가 한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며,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억울한 옥살이가 하루라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에 신뢰의 시대로" "더불어사는 사회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무언가 거꾸로 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든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단어로 공감하면서 그늘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처럼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대통령의 말씀이 말 그대로 '장부의 중한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식에 대해 한 말들이 믿기지 않으니다면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주셔서 할과 거짓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성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는 하루속히 거두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권태광 / 서울 성동구 자양3동 227-158

독자의 눈 공안수배자·양심수 모두 사면조치 돼야

지난 6월 정부는 양심수들을 비롯해 상당수 일반수들을 사면했다. 이번 사면은 대상자가 약 4만명이나 되어 기존의 사면과는 특별 다른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노태우 정권 초기부터 누적돼온 사국사건, 밀입북 사건과 종의대 사건, 외국어대 국무총리 폭행 사건 관련자, 그리고 성격을 달리하지만 '회색 반항'이었던 김보은씨 사건 관련자 등이 포함돼 주목받을 만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5공·6공의 관련된 몇몇 사람도 함께 사면된 것이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에 맞추어 수습으로 단행된 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보며 고무적인 일이

라고 생각한다. 또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화합의 구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체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30~40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과 몇년의 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미흡했다는 데에 대해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5·16 이후 왜곡된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30여년 만에 서게 되는 문민정부는 이러한 이집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능히 깨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단행된 사면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낡은 냉전적 사고와 정권유지적 사고가 남아 있다고 판단돼 새 정부의 개혁이 '달걀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진실로 대화합을

이루어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혁과 변화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양심수, 공안수배자나 하는 말이 없어야 한다.
물론 이번 사면이 사상 최대의 규모이자 문민정부 출범에 맞춘 뜻깊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양심수, 공안수배자, 장기수라는 단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김영삼 문민정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번에 빠진 공안관련 수배자와 수배해제의 모든 양심수의 석방, 그리고 장기수들의 석방이아닐로 새 정권 개혁조치의 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송경재 / 서울 관악구 봉천1동 873-69

'명동 신화' 사라지는가

'범국민대회회의' 필적 공방에 힘 소모, 투쟁 지속 불투명

김담 기자

4천만 국민 여러분! 87년 6월의 명동성당을 기억하십니까?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으로 4천만 국민의 기대와 뜻을 모아 5월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민주의 성지 명동성당은 백두대낮에 쇠와이프로 사람을 죽인 노태우 정권하에서

다시금 민주주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14일 강경대군 장례식(1차) 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외장 김중식)에서 부인 한 유인물의 선전문구이다. 전대협은 또 '명동성당 구국농성단' 이름으로 된 '명동성당에서 싸움은 계속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한편으로 "시민과 손잡고 6월항쟁의 그날처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조직적인 대오를 갖춘 것은 지난 5월18일 강군 장례식 및 2차 국민대회를 마친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쟁취 수습을 위한 범국민대회회의'(대회의) 관계자들이 '입성'하고서부터이다. 대회의의는 이곳을 제2단계 투쟁거점으로 삼고 무기한 장기농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과거의 영광과 6월항쟁 때의 '성역 장배'라는 시민 동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때와는 다른 여러 변수를 앞두고 있다. '6·29 항복'이라는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과 반대로 그때의 성취감을 잊지 못하는 세력간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5월투쟁에서 6월항

쟁으로 옮겨가는 '정권타도' 구실을 하기에 명동성당이 이미 퇴락했기 때문이다.
우선 성당 농성자들은 4년 전과는 달리 명동성당측으로부터 후대를 받고 있다. 이는 6공 들어 평화신문·평화방송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가톨릭의 보수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87년에는 6월항쟁의 본수령이 된 '6·10 박종철군 고문살인'은 폐쇄적 및 호헌절제 규탄 국민대회가 당시 시위정국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국민본부 등 범야권의 공동주최로 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명동성당에서 터졌다.

6월항쟁 이끌어낸 '민주의 성지'

지난 87년 5월18일 밤 7시에 명동성당에서 열린 '5·18 광주항쟁 희생자 7주기 추모미사'에서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11개 항목의 성명서를 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름으로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제단의 목탄선언은 결국 황정웅 경위 등 고문관련 경관 3명과 박치원 지안감 등 치안본부 고위간부 3명의 추가구속, 노신영 국무총리를 포함한 부총리 인기부장 내무장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공안 관련 각료들의 경질(5·26경과)을 가져왔다. 그러나 개라으로 시위가 진정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거의 격일제로 지속된 시위의 정점은 앞에 말한 6·10대회였다. 민정당 전당대회(대통령후보 지명대회) 및 촉하던이 열리는 때를 택한 이날의 대회는 오후 6시 경에 원천봉쇄된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시작해 도심지 시위를 거쳐 명동성당에서 끝난 셈이다. 그러나 명동성당 농성은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많았다.

그날 명동성당은 한국의국어대·서울시립대 등 서울지역대학생협의회 등부지역 대학생 집결지였다. 그런데 밤 9시 이후부터 퇴계로에서 시위중이던 대학생 1천여명이 경찰에 밀리면서 성당 구내의 계성여고



87년 6월 명동성당 농성은 6·10 이후 거의 날마다 되풀이된 도심지 시위의 중심지 구실적으로 작용했다. 학생들은 시민들의 지원 속에 성당에서 5월6일 동안 농성을 벌였고(맨위 사진), 이 농성은 많은 시민이 가세한 촛불시위로 마감됐다(위).

를 통해 물러났고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출구가 봉쇄된 가운데 밤 11시쯤 지도부를 급조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결야농성을 결행했다. 그러나 '백본 김'에 제사를 지낸 농성단은 밤새 5백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른날, 성당측 신부 3명이 경찰에 농성 학생들의 안전권이 보장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주동자는 연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데다 성당에 피루탄을 쓰는 바람에 농성 분위기가 바뀌어 예정된 '하룻밤 농성'이 '5박6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이 각 대학 학생회에 편파를 걸어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명동성당 농성학생 구출시위'가 나중에는 '농성 지지 시위'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많은 시민이 경찰의 봉쇄선을 뚫고 이들에게 빵, 음료수, 의약품 등을 건네주며 농성을 지지했다. 정성을 먹여 나온 근처의 회사원 등 이른바 '네티이부대' 1천여명이 거의 날마다 성당 진입로를 가득 채운 채 축식가 두시위를 벌였고 삼정 주민들도 이에 가담, 명동 일대는 '호헌철폐, 독제타도'라는 연호와 "쏘자마, 쏘자마"라는 함성과 "우" 하는 아우 그리고 '아침이슬' 등의 노래소리로 뒤덮였다.

명동성당에서도 학생들을 맡 그대로를 삼양면으로 지원했다. 농성 학생과 경찰의 접점으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성당측은 성모병원 의료진들로 성당 구내 교육관에 의무실을 설치하여 부상학생을 치료했다. 학생들이 무표를 통해 해산을 결정한 6월15일 마지막날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농성장에 올라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격려하면서 학생들의 손을 하나 하나 잡아주기도 했다.

성당측 냉담한 반응 보여 '노숙' 명동성당에서 전과된 '호헌철폐, 독제타도'라는 용법이 '해체 민주당, 퇴진 노태우'라는 구호로 바뀐 오늘,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농성투쟁을 택한 '법국민대회의'라는 이름으로 결집한 이른바 민족민주(민민)운동 세력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우선 절박기에는 민민운동세력이 고립무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성당측은 성당이 현재서 투쟁의 장이 아니

라는 종교적 입장을 내세워 철수를 요구하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권 사용도 금지해 농성자들은 성당 뒤편에 있는 성모마리아동산 주변에 친 대현천막 6개 안에서 전기·전화도 없이 노숙하는 형편이다. 이들은 다만 5월20일부터 가톨릭회관 3층 경의구현사제단 사무실에서 무기한으로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화 실현을 위한 단식기도'를 벌이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제 15명 등 진보적 성향 신부들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예전과 다른 정부당국의 이중성도 이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주화가 된 마당에 명동성당 마당은 더 이상 민주화 시위의 장이 될 수가 없다'는 자신감에서인지 4년 전과는 달리 성당 출입을 막지 않고 있다. 반면에 경찰은 이우호씨(집행위원장)와 한상필 목사(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회의의 관계자들에게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전경들이 성당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배치돼 있긴 하지만 드나들기는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데도 일반 시민들은 별로 이곳을 찾지 않고 농성자 또한 1백명선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 5·4, 5·9대회를 통해 고요한 반정부 시위가 5·18광복시 및 국민대회의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시위가 수그러든 이유는 그동안 수세에 몰려 있던 집권세력이 5월18일을 기점으로 공세로 전환한 데 있다. 공세의 조짐은 지난 5월8일 김기삼씨

(전민연 사회부장)가 분신했을 때 검찰이 언론에 흘린 이른바 '분신 배후세력'에 대한 언질과 서장대 총장 박흥 신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죽음을 부추기는 배후의 검은 세력을 폭로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에서 나타났다. 특히 박총장의 발언은 법국민대회의에 대한 범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나중에 박총장은 배후세력이 재야운동권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해명을 했지만



91년 5월 27일 6월항쟁 때와는 달리 계획적 농성을 택한 법국민대회의는 농성 첫날부터 활력 싸움을 휘말렸다. 필적 살명회(안위 사진)를 가진 뒤 시국대본회의(위) 등을 열고 6·10대의 때까지 집기전을 벌일 계획이다.

언론 상업주의에 부추겨진 필적 공방

검찰 '예비단계'가 확대... 전민연 "여론조작 전략이다"

이미 상업성이 떨어진 해명은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도덕성에 흠집을 입은 민민운동세력은 5월18일 검찰에서 발표한 김세 유서의 대필 의혹이라는 공세의 신호탄과 언론의 상업적 보도라는 조맹탄이 쏘아진 가운데 이른바 필적공방전(오른쪽 관련기사 참조)에 휘말리게 되었다.

5-6월 잇는 '검정다리' 역할 못해

문제는 5월1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한 대회의가 민주인 동안이나 필적공방이라는 소모전에 휩싸여 결국 5월투쟁과 6월항쟁을 잇는 징검다리 구실을 못했다는 점이다.

계다가 5월18일 이전에만 해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노태우 내각의 전위 여부'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온통 '자필이나 대필이나'에 몰려 있다는 지적은 필적공방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있다. 지난 5월22일 명동성당 성모마당에서 전민연이 주최한 대회의의 가입 성당·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필적공방 설명회에서 임종철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의 회장)는 필적 공방을 둘러싼 '여론'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지적했다. 이씨에 따르면 주위의 동료 학사들조차도 어느 쪽이 맞는지 반신반의하므로 '무슨 소리냐, 목사인 전민연 한사람의 주장이 신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대필은 조작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동료 또한 "그렇지만 신부인 박흥 총장이 분신 배후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 하고 반문할 만큼 '여론조작'의 힘이 크다는 것이었다.

농성 시작부터 필적공방을 둘러싼 소모전에 휩쓸린 대회의는 5·23시국대본회의, 5·24문화항쟁 등으로 성당 안에서 투쟁의 불씨를 지낸 뒤에 5·25 3차국민대회의 불길을 당겨 6·10대의 때까지 장기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회의의 내부 조직물간의 결속력이 약한 데다가 구호가 아닌 실현성있는 노정권 퇴진운동을 담보할 권력 대체세력 창출 문제를 놓고도 민중민주정부론과 민주연립(연립)정부론이 맞서 있다. 게다가 과연 국민대중이 인정하는 대체세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내각개편과 함께 이뤄질 정부의 개량적 민주개혁 조처와 광역의회 선거에 대한 대응방향을 둘러싸고 노선투쟁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자 필이나 대필이나.” 분신자살한 김기삼씨의 유서를 놓고 검찰과 전민연이 벌여온 필적공방은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까. 이제는 단순히 '화제거리'로 변질되고 있는 듯한 이 '해피한' 공방전의 결말은 예상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검찰이 대필이라고 자신있게 내세우는 증거는 국립과학수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김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씨의 진술이다. 그러나 전민연측은 국립과학수연구소가 내부부 산하기관임으로 믿을 수 없으며, 홍씨의 진술도 96시간 동안 붙잡아놓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받아낸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수사 용의자로 지목한 김기삼씨와 이밖의 전민연 관계자들 강제 소환해,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전민연은 계속해서 '조작'이라고 주장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적인 결심이 나도 실질적으로는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공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김세유 가운데 필적의 전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열리는 △분신자살한 김기삼씨(26·전민연 사회부장)의 유서 △대필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삼씨(27·전민연 총무부장)가 85년 11월 가락동 민정당연수원 집기농성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전민연이 검찰에 제시한 김씨의 전민연회원용 수첩 세가지이다.

검찰은 5월21일 김씨가 작성한 자술서를 국립과학수연구소에 필적감정한 결과, 유서와 같은 필적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김씨의 손도장이 찍힌 자술서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연구소 감정결과가 어떤 근거에서 동일필적으로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전민연은 이러한 검찰의 석연치 않은 진술서에 대해 "언론조작을 통해 여론을 호

도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김씨의 자술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연구소의 감정결과가 2인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해적으로 실장 1인이 감정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대필자로 지목된 김기삼씨(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처럼 전민연이 검찰의 발표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은 김씨가 갖고 있다가 분신 전날 홍씨에게 전해주었다는 '전민연회원용 수첩'의 전위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홍씨를 추궁한 결과 수첩에 위자본 흔적이 많은 데다 전민연이 수첩의 존재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수첩 은폐에 관계된 전민연 선전부장 원순용씨 등 3명에 대해 강제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첩의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같다고 밝혀지더라도 김씨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예이다.

반면에 전민연은 "수첩에 가려진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는 22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긴급집회에서 "수첩이 전민연에 수거된 직후부터 검찰에 제시될 때까지 전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코 조작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려진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려면 물리화학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해 10일 이상이 걸릴텐데 필적감정인이 아닌 검사가 어떻게 단 하루만에 가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실록 수첩이 조작됐더라도 정밀검사가 후에 발표하는 게 국민의 공익을 대표하는 법률기관이 취할 태도"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이렇다면 결론이 금방 나올 수 없는 사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좀더 확실한 유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왜 이같은 사건을 터뜨리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때는 강경대군 사건 이후 잇따른 본심이 '편가 이상하지 않

해어진 뒤의 필적이 불투명하고 △전민련 간부 임근세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포장 마차에서 술을 마실 때 20대 여자 등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는 포장마차 주인의 증언이 있고 △김씨의 유서에 나오는 전민련 사무차장 金萬澤(35)씨가 현재 서강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고 이 학교 총학생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따라서 필적공방은 검찰이 확실한 유증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단계로 연 '포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용의자로 잠은 다음 본격적인 배후수사를 벌일 수순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필적공방은 서쪽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언론의 상업주의를 타고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와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유서의 필적과 김씨의 필적이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황 때문인지 전민련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강씨의 경찰 자술서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검찰이 계속 분석할 삼는다면 이 사건을 세계적으로 여론화시켜 국제적 공인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전민련이 이렇게 자신있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검찰 주장을 뒤엎을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필적은 정자도 쓴 글씨체와 평상시에 쓴 글씨체 두가지가 있는데 검찰이 실물리 "다르다"고 판단, 대필자를 찾은 끝에 강씨를

<p>수첩 위의 필적이 강씨의 필적 - 같은 기법 -</p>	<p>민중혁명 재취를 위한 하나 되어야 합니다. - 김기철 -</p>	<p>3월 14일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1:00 11:05 11:10 11:15 11:20 1</p>
---	--	---

내리게 했을까라는 점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물적 증거는 물론 그럴듯한 정황조차 주리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민련은 또 "실질 검찰의 주장대로 분신을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한두번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누가 그같이 서분 것을 하였는가"라면서 오히려 검찰이 유서대필을 주장하는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5월 8일 김씨의 분신 직후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증거 확보에 앞서 언론에 '분신배후조종'이라는 '에단'을 앞세워 발표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어 △분신 직전 건물 옥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나타나고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옥상을 일구기 자물쇠로 잠겨 있어 혼자 열기 어렵다고 밝히 '분신배후조종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1간은 검찰의 수사 발표는 하부도 태 안돼 모두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안기부·검찰 등 수사기관이 분신사건과 관련, '배후조종설'을 퍼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안기부는 지난해 9월 "운동권 대학생이 노동현장에 침투, 분신자살 등 극한부정을 꾀한다"는 '시나리오'의 인화물을 대량제거, 각급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배포해 발명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특히 이번 검찰의 배후수사는 이미 발표 하루 전날 청와대 고위당성회의에서 그 방침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배후수사는 검찰의 수사권 차원을 넘어 정부의 총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재야쪽은 검찰의 수사가 지난 7일 현직총공보노조위원장 박성수씨의 수감 난관에 이어 시작된 것이란 점에 비추어, 강경대처 죽음 이후의 정치적 위기를 부마화시키려는 공안정권의 정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의 분신 직후 검찰이 발표한 영보물 위한 점에 대해 전민련의 한 관계자는 "분신 전날 밤 김씨의 분신기도 소식을 전해들은 대법회의 전민련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나선 때 이 모든 상황을 전최도정을 통해 감지한 공안난국이 처음부터 조식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련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한 '조작극'의 시나리오'는 다소 엉성할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 분신 사건이 전진, '운동권'이 배후조종하; '사살'공태'의 전개; '승명'사'위한 김씨의 노익은 계속됐다. 이것은 상황에서 김씨가 김씨 집에서 입수한 필적과 유서대필이 드러 보인다는 사실은 검찰에게 "드디어 대의를 잡았다"는 격렷함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3차례의 감정결과

를 토대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김씨의 유서대필자로 지목했다. 검찰 발표는 김씨의 유서필적이 △김씨 가족이 제출한 조카생일기념 편지와 주민등록증 분신신고서의 필적과 다른 반면 △85년 민정당연수원 필적용성사건 당시 강씨가 경찰에서 쓴 자술서 필적과 같기 때문에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을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격판성'과 필적감정의 '정확성'

먼저 유서필적(유필적)과 편자·주민등록증분신신고서의 필적(정자체)이 다르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전민련측은



5월 2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찰수사관에게 서문서 전민련 민권위원장 "공개수사"를 요구했다.

관련자료의 제시를 통해 김씨의 필적이 "유필적과 정자체 두가지"라고 밝히고 검찰이 필적감정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김씨의 필적이 두가지라는 사실은 김씨 가족도 확인했다. 또 중앙인명필적감정원의 감정인 이인환씨는 "유필적과 정자체의 비교만으로는 필적의 같고 나함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필적의 필적감정을 위해선 또 다른 유필적 글씨와 비교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서필적 차이점이 상존하고 정서, 속필 또는 필기구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없어 이동(異同)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정결과에 대해 김씨가 "사실상 필적이 나:나는 편질"이라고 자의적인 "유필적"을 내린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전민련은 또 강씨의 필적과 관련, 5월 16일 강씨의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심지어 강씨가 농생에게 쓴 낙서 쪽지까지 다 가진 김씨가 85년의 자술서와 "한글이 거의 없고 영자와 화학기호·공식 등으로 띄어진" 화학노트만을 감정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전민련은 강씨가 마천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당시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이 편지에는 교도관이 김원권 노장과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반면 강씨의 필적에 가담했다"면서 "이 역시 감정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3일 영등실당 성모미당에서 열린 전민련 주최의 유서대필공방 관련 제2차 설명회 모습

제다가 전민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격판성도 의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내부부장관 소속기관인 만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장은 지난 87년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민정 당시 치안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감의 황적준 박사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해 부감감정서를 두차례나 고쳐 쓰게 한 '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유중진씨는 지금도 소말직을 맡고 있다.

필적감정 자체의 정확성도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필적감정은 작업 자체가 '사람의 눈'에 의해 이뤄질 뿐 아니라 '취향'에 의존하기 때문에 1백% 신뢰할 수는 없다. 실제 이번 필적감정을 담당한 김영영 문서분석실장도 80년 2월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어 곤욕을 치른 적도 있을 만큼 감정의 정확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상공 자선조직 전화통화에서 "필적감정의 오차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도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홍성문씨는 지금 어느 곳에?

검찰은 김씨의 새로운 필적들이 속속 나오고 필적감정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김기철씨의 여자친구 홍성문씨의 진술내용을 5월 22일 공개했다. 홍씨의 진술이라고 김철이 밝힌 바에 따르면 8김씨 분신 날 10시, 12시 등 차례에 걸쳐 강기훈씨 등 4명이 모여 대법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강씨가 홍씨 수첩에 "김기철"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를 써 넣어 사신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훈씨는 "두명의 모임은 어디까지나 홍씨를 위호하는 자리였으며 홍씨 수첩에 전화번호를 써 넣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홍씨 진술의 법적 효력과 관련, 이석태 변호사는 "법적으로 96시간을 반강박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문제이러니와 이는 수사단계의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씨쪽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논리로 홍씨의 진술을 강력히 내세우던 검찰도 24일에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자술서의 필적이며 홍씨의 진술은 단순한 보강증거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발 후퇴했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홍씨는 "부모의 보호 아래 전화 한 통하면 연락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씨의 진술 역시 '권 힘'이 못되지 검찰은 김씨의 분신 이전 행적으로 수사의 발간을 들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7월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8일 오전 5시부터 분신하기 직전까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검찰이 김씨에게 유서를 강제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강기훈씨는 7일 오후에 전민련 사무실에 계속 있었으며, 8일 새벽엔 집에서 잠을 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씨가 지도하던 방송통신대학 '소리내며' 회원으로, 김씨로부터 분신기도 사신을 처음 들은 이치해씨의 얘기는 주목할 만 하다. 이씨에 따르면 김기철씨가 "6일 오후 마포 가른호방 부근의 한 카페에서 '유서'에 어떤 내용을 썼으면 좋겠느냐'며 대화노드며 뭐가든 적기에, 달라고 하니깐 '이제 됐다'며 떨어버렸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김씨가 구체적으로 유서의 내용을 생각한 건 6일 오후부터이며 이후 강씨를 만날 수 없으므로 강씨의 '알리바이'를 뒤엎을 수 없는 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강기훈이 홍길동이면 말인가"

검찰은 김씨의 행적 수사도 난관에 부딪하자 25일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의 수첩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수첩에서 떨어진 전화

호 기밀부분 3장과 남은 부분의 "절지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검찰은 이런 불일치는 "강씨가 자신의 수첩 가운데 전화번호를 적은 부분만 벗어내고 김씨의 수첩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은 뒤 이를 끼워넣어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민련은 "수첩 일 부분에 적혀 있는 스키타를 가운데는 숨긴 김씨 밖에 쓸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있어 수첩은 김씨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민련의 한 관계자는 전민련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검찰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그림 강기훈이 무슨 산출기록하는 용기동이라도 된다는 말이나"면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강씨의 공방 숫자가 중대범죄급에 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운동선언서 가명을 너무 많이 써 김씨의 필적이라고 믿기 어렵고 극단적인 예로 강씨가 '김기철'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공백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이같은 검찰의 '사고구조'를 이해하는 데 드레퀴스 사건 당시 김사의 예가 도움을 줄 지도 모른다. "김사는 드레퀴스의 필적과 '명세서'의 필적에 차이가 있는 건 '매우' 조심스러움" 드레퀴스가 다른 필적을 가장 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드레퀴스의 집을 뒤지고 그의 전력을 살피기 조사했음에도 역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건 그가 범죄를 은폐하는 데 천재적인 조심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김사는 드레퀴스가 저부한 심문자질에서도 단 한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가 영리한 편 아니라 초범적자적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드레퀴스와 지식인"에서)

'어른재판'과 언론의 돌발매질

검찰의 수사태도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태도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검찰의 "근거없는 주장"에도 대부분의 신문들은 문제제기 없이 '받아쓰기'에 충실했다. 더구나 일부 신문들의 경우엔 이를 뛰어 넘어 과잉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검찰의 발표는 연일 사회면 머릿기사로 차지한 반면 전민련쪽 주장은 2-3단 정도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 명동성당에서 만난 한 기자는 "유서대필 여부를 놓고 검찰쪽 출입기자와 실전을 벌였다"면서 "검찰 출입기자의 연조가 더 높아 검찰의 주장이 신문에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들은 형사범죄사건 보도의 측면에서 유죄판결

전 부죄추정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어른재판'을 유도했다. 언론을 통해 '범죄자'로 불린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씨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기차들에게 이렇듯 호소했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데 당신들은 매일 당신들의 조그만 부기로 한 사람을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아이들은 재비로 그런 짓을 하겠지만 당하는 개구리는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기억해주시시오."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명동성당에서 '반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강기훈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처단 심정을 밝혔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요즘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제 주위분들이 받는 현실의 고통을 덜어주진 못한다는 사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강씨의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던 교수들이 연락을 끊은 데 상심, 요즘은 교회에도 안나간다고 한다. 또 국민학교 평교사모인 40여년을 제직, 정년퇴직을 1년 앞둔 그의 아버지는 학교로 자주 걸러오는 검찰의 전화에 지병이 더욱 악화됐다. ○여대 법학부에 재학중인 그의 여동생도 심할 수사에 충격을 받아 '법관이 돼선 뭐냐' 나도 운동을 하겠다'며 한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또 강씨의 친구 중 벌써 10여명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거나 출무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단지 자신과 친지들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치 체제 아래서 히틀러를 광신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도 결국 과시즘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서대필'이라는 검찰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어찌보면 피해자인 셈이지요."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도 "이 사건은 평소 정권이 국민에게 심어놓은 '운동권은 빈가 음모죄'이라는 편견을 최대한 활용한 '한국판 드레퀴스 사건'이라면서 "이들 검찰과 전민련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명백히 양심과 비양심, 진실과 거짓의 대결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년을 '암흑' 속에 살았던 드레퀴스의 희생 위에서 프랑스가 되찾은 것이 있다면 그런 바로 프랑스의 '양심'이 있다. 그럼 우리가 '유서대필사건'을 통해 되찾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기획

지적 선정주의를 파는 지식인 스타들

'지식인 스타'가 막강한 '책임없는 권력'을 행사하며 '지적 선정주의'를 남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 스타 김동길과 김지하. 그들은 대중매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를 조망함으로써 스타 지식인들에게 거듭남의 과제를 제기한다.

강준만(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

지식인 스타의 '권위적 후광효과'

요즘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권력의 변환」이라는 책으로 또 뽐냈던 인세수입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창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지식의 '가치중립성'엔 제국주의적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영 꺼림칙하기 짝이 없다.

더욱 꺼림칙하게 생각되는 건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토플러가 누리는 '구세주'와 같은 지위이다. 그가 대학교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의 학문적 업적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솔직히 대학교수들은 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메타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전문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창의력과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기 십상이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해도 책만 썼다 하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는 토플러의 '파력'엔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그건 대중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생의 발명은 귀족과 승려계급의 지식독점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후일 자본가계급이 지식을 상업화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사회이론과 같은 지식의 시장경쟁력은 여전히 지식인계급 내부의 학술적 성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었을 뿐 거리로 뛰쳐 나와 여론조사로 심판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구조주의의 기호학이 대중매체를 통해 시중에 범람하게 되었을 때 '포도심리학'이나 '자유연상의 게임'으로 전락한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이제 사회이론마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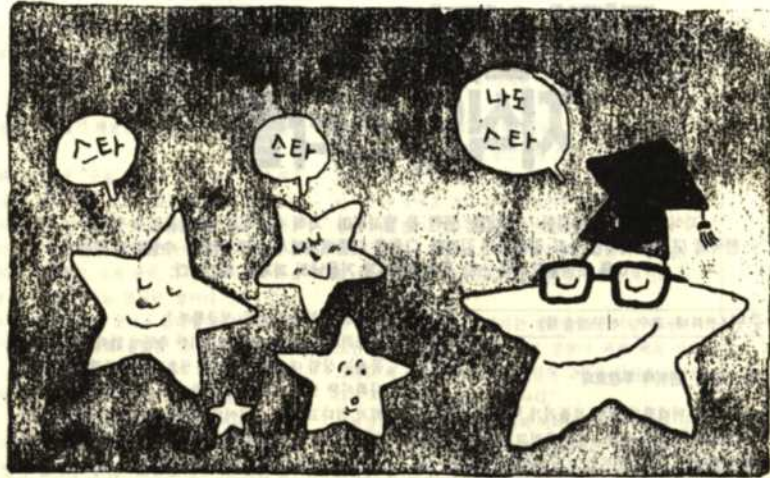
전단을 내린다면 너무 성급할까? 사회이론의 대중화는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상업 대중매체에 의해 선조되어 시장경쟁력을 갖는 사회이론 또는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견해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것은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 분석하고 해석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전히 문제삼지 않은 채 미래를 미들어대거나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환치시키는 이론·주의·주장들이 대중매체의 사당을 받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대중매체의 그러한 편에는 '의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스타'를 만들어내야 '몰진'이 지속적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스타'가 '영웅'을 대체한 현 시대에서 '지식인 스타'는 '연예인 스타'가 갖지 못한 '권위적 후광효과'를 갖고 있어 정치적 상품으로서 대중매체의 판매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됐다.

'책임없는 권력'의 '지적 선정주의'

지식인 스타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선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는 달리 지식인 스타가 되기 위해 지식을 많이 쌓을 필요는 없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오히려 학문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 스타가 되고자 하는 적극성이 부족하기 쉽다. 그저 서울에 있는 그럴듯한 대학에서 교수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일단 기본 자격은 갖춘 셈이다. 대학교수가 아닌 지식인은 베스트셀러를 냈다가나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 이름이 제법 알려져 있는 정도면 족하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탁월한 글솜씨 또는 말재주이다. 게다가 잘생김 필요는 없지만 그럴듯하게 개성있는 용모를 갖추고 있으면 스타가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타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이다. 이게 있어야 대중매체의 종사자들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단 스타가 된 지식인은 자신의 '언술행위'를 통해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권력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책임없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제도적 권력보다 더 자유분방하고 또 그래서 막강할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회적 권력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한 가지 비결은 '지적 선정주의(intellectual sensationalism)'이다. 충격적인 발언을 자주 해야 상업 대중매체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명성은 일단 한 번 형성되면 별다른 근거없이 그 자체가 권력의 원천이 되는 참으로 묘한 것이다. 스타 지식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비극은 그들이 종종 순전히 대중매체에 의해 얻은 명성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자신의 권력이 대중매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데에 있다. 대중 역시 그들이 반기는 스타는 단지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스타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 망각이 어울려 스타 지식인의 '과대망상'을 낳는 경우가 많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스타 지식인의 추종세력은 파편화되어 있는 대중매체의 수용자일 뿐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은 아니다. 물론 대중매체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한 그 세

력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원천이지만 명성은 유행과 같아서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 유행의 변덕을 막아 보겠다고 충격적인 '지적 선정주의'를 남용하다 보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스타의 또 다른 비극은 조연을 맡지 않으려는 데 있다. 사회운동세력의 지도자들조차 대중매체에 의해 스타로 부상되면 자기도취에 빠져 협력의 정신을 상실한 채 독주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과 전략을 외면한 '스타 정치'는 대중매체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겠지만, 이는 자신과 자신이 믿던 사상마저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상품성'을 '위대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김동길씨

한국의 스타 지식인의 원형은 어떠한가? 스타는 손꼽을 만할 스타 지방생들은 이부 해아릴 수 없이 많다. 그건 한국의 대중매체가 대학교수에 부여하는 '특혜'에서 비롯된다. 물론 극히 일부의 대학교수들이 그런 '특혜'를 향유하는 것에 불쾌하긴 하나 어찌 됐든 한국만큼 사회언어를 대학교수들이 장악하시며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엔 칼럼니스트라는 독립된 직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칼럼 쓰는 일을 거의 대학교수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방송의 과당회나 토론회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다 못해 격원 논설위원·해설위원까지 거의 다 대학교수의 몫이다. 그런데 그 '특혜'라는 걸 잘 뜯어 보면 알라하기 짝이 없다. 대중매체가 대학교수들을 이용할 때에 그들로부터 가장 원하는 건 그들이 묶여있는 대학의 제도적 권위이지 다른 게 아니다. 물론 대학교수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똑똑하고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교수들의 이름이 기차나 프로듀서들의 수첩에 올라 있는 건 분명하지만 더욱 중요한 삶의 기준은 정치적 성향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한국 지식인의 대표성은 전적으로 대중매체가 결정하고 있다. 적어도 대중의 인식을 전제로 할 때에 말이다. 대중매체에 의해 이름이 좀 팔린 교수들은 마음먹기와 '줄대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관계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대 정치학과는 지난 46년에 개설되었지만 아직도 단 한 명의 정년퇴임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에서 사회적 권력을 최대한 향유하다 안전하게 정·관계로 진출하는 최상의 방법은 신문기자 아니면 교수가 되는 것이라는 말도 편한 소리는 아닌 셈이다.

대중매체에 의해 스타 지식인으로 부각된 대표적 인물로는 김동길 교수를 빼놓을 수 없다. 아니 이제 대학을 그만 두었으니 김동길씨라고 불러야 옳겠다. 그의 스타성은 자신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교정에 나붙었다고 대학을 과감히 그만두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학을 그만두는 '용기'를 보이는 교수들은 한결같이 '대중매체로의 본격적 진출'이라는 새로운 생존수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스타 교수들이 아니던가. 그러니 스타가 아닌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김씨보다 더한 모욕을 받고서도 그냥 학교에 눌러앉아 있다고 해서 용기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정히 이야기해서 김동길씨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기본적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특히 그의 종교적 근검정신은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일개 대학의 평범한 교수로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섰다는 데에 있다. 그는 대중매체가 가져다주는 환상의 대표적 희생자인 셈이다. 그는 대중매체 종사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상품성'을 자신의 '위대성'으로 착각하고 있다.

지식인보다는 스타에 더 가깝다

김동길씨는 입심도 좋거니와 글솜씨도 대단하다.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때에도 실수 한 번 하는 법이 없어 방

송프로듀서들의 찬사를 아낌없이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그는 대중매체가 늘 굶주려하는 '사건성 발언'에 뛰어나다. 그의 제자가 "교수님은 평소에도 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으려 한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하듯이 그는 '지적 선정주의'에 능하다.



문은 '지적 선정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김동길씨 자신이 '텔레비전이 체제로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텔레비전 출연요청을 거절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는 자신의 지식과 사상을 '대중화'시키는 데에 수단을 별로 가리지 않으며, 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김씨가 추구하는 '지적 선정주의'엔 지적인 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길씨의 이른바 '3김씨 퇴진론'도 개념 선득력이 있되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당락이다. 과거에 한란한 민주화 투쟁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뀐 세상에 새롭게 적응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의 무대

에서 사라져야 한다면 그게 어떤 정치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던 발언가? 자기 자신의 시대의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지식인은 정치인과는 달리 사회적 권력을 죽을 때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암묵적 전제는 부당한 논법이 아닐 수 없다.

익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동길씨가 누리는 대중적인 기의 원천은 여성이다. 다른 교수들은 "센터 광고 사이에 내 글을 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지에 글쓰기를 꺼리지만 그는 "여성권에 있는 여성이 내 글을 읽고 '그렇군' 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어느 지면에도 글쓰기를 즐긴다. 그래서 그는 여대까지 책을 60여 권이나 냈고 강연을 6천 번이나 했다.

김동길씨의 대중교육에 대한 업적은 대체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한국 대학교수들의 체질에 비추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금 김씨가 그 업적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 업적은 김씨 개인의 '정열'과 '근면'에 크게 의존한 것이지만 그 어떤 특별한 '견해'나 '안목'을 제시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김씨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제가 대중의 지식획득 욕구는 때로 스타 지식인의 니콜한 선명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족된다. 대부분의 여성지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다. 김동길씨는 자신이 정치에 진출할 경우 여성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지만, 그런 표의 실상은 인기 남성배우에게 던져지는 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견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요컨대, 스타 지식인으로서의 김동길씨는 자신이 지식인보다는 스타에 더 가깝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언행 하나 하나 이해 못할 게 없다.

김지하씨의 고백은 스타들만의 특권

김동길씨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스타 지식인이란 대중매체를 소극적이되 보다 더 강력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스타 지식인으로 김지하씨를 빼놓을 수 없다. 김동길씨는 같은 '봉요의식'을 느껴서였는지 자신이 진행하는 MBC-TV의 「추억은 가슴마다」라는 프로그램에 김지하씨를 출연시키려고 직접 전화까지 했지만 설의에 걸세하였다. 김지하씨는 그렇게 '바빠서' 노니 '만남' '지식 선장주'에서도 김동길씨보다 한 수 높다.

김지하씨는 말한다. 지금 필요한 일은 "명상을 통해 자기의 잘못과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드러내며 그것을 스스로 사회에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그것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고백의 기회와 방법의 불평등 구조는 어찌하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시껌뻐한 '오일필'까지 신문에 대분량으로 고백하고 원고 1매당 3만5천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그럴릴 못하지 않은가. 돈을 받기는커녕 돈을 낸다 해도 그런 너지 못한 고백을 신문에 실어줄 리 만무하다. 가까운 친구와 술과식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 해도 술주정을 한다는 편견을 듣기 십상일 게다.

김지하씨에게는 못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지면을 할 때 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는 좀 나은 편이다. 김지하씨의 충고에 따라 나도 그 고백이라는 걸 좀 해보자. 만약 내가 여기서 나의 '오일필'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당한 일일까? 그런 나의 과대망상적 처기의 표현이기에 앞서 「말」지 독자들에게 대한 최대의 모독일 것이다. 요컨대, 고백은 스타들만의 특권일 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부리를 해서라도 비교해 내 격에 어울리는 고백 한 가지를 해보자. 나는 고백권대 보수주의자이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진보적'이라고 평하지만 그들이 본 나의 실체를 안다면 나를 기회주의자라고 부를 게 뻔하다. 한국은 참으로 묘한 나라여서 극우 파시스트들이 보수주의자로,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로, 진보주의자가 빨갱이로 통하는 '이데올로기 인플레이션'이 만연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수주의자이든 진보주의자이든 그걸 따지는 건 부의미하다. 그러나 내가 보수주의자임을 고백하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나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일 것이다.

맹목적인 고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백은 소극적으로는 '양심의 산동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적극적으로는 '심리적 방어기제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행위이다. 김지하씨가 '4·19혁명 참가'라는 약력이 허위이며 그 유명한 '양심선언'이 고 조영래 변호사의 작품이라는 걸 밝힌 건 '소극적인 고백'에 해당된다.

선의의 충고라면 「조선일보」를 찍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김지하씨의 '적극적 고백'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1가 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한 고백은 5월 5일자 「조선일보」에서 한 발언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김지하씨는 실낱 아침 원주 수정역한 301호실에서 이렇게 했다. "나는 분명 유병인사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부실하여 겁으로는 안 그러는 척하면서도 명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티무니없는 영웅심이 있으며...정신적인 지



도약이 되고 싶다는 어처구니없는 야심이 분명 내 마음 밑바닥에 시커멓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실낱 아침. 그것도 여관방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분위기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했겠지만, 이 고백은 김지하씨의 뼈를 깎는 고통을 자기성찰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다. 김지하씨 역시 그런 고백을 한 지 3개월도 안돼 그의 고백대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조선일보」 5월 5일자에 실린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김씨의 글은 그 내용을 문계삼기에 앞서 그 형식이 '선적'을 위한 글이 아니었다. '젊은 벗들'이 '세6의 적'이라도 된다 말인가? 뒤늦게 아내에게도 쓴대문을 쓰지 시작했다는 사람의 말투치고는 지나치게 자기괴시적이고 도발적이다.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을 만큼 그 글의 형식은 내용을 압도하고 있다.

그 글은 엄밀히 말해 '방백'이었다. 연극에서 방백은 청중에게는 들리나 무대 위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말하는 대사를 의미한다. 김지하씨는 맑은 무대 위에 있던 '젊은 벗들'을 향해 말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들을 수 없게끔 무대 밑의 영등한 사

람들만을 향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다. 왜? '젊은 벗들'은 그의 '명성에 대한 집착' '티무니없는 영웅심'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어처구니없는 야심'을 충족시켜주기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마살 맥루한이라는 자본주의 옹호자로부터도 배울 건 있다. 그는 "메세가 메시지"라고 했다. 형식이 곧 내용이 라는 뜻이다. 똑같은 그뤼일지라도 감상할 당시의 배경을 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지 않던가. 물론 맥루한의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김지하씨 방백의 경우엔 딱 들어맞는다.

김지하씨가 정녕 '젊은 벗들'에게 선의의 충고를 하고 싶었다면 「조선일보」라는 매체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6공 정권'에게 충고를 할 때에 가장 섹 득려유 갖는 매체이다. 「조선일보」가 원고료를 많이 주고 '장사 팔하는 신문'이라는 건 김지하씨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김지하씨는 신문의 형식적 영향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순진하게도 「조선일보」의 장사속에 놓이려고 말했다. 그의 방백이 실린 지면을 살펴보자. 학생들의 분신자살을 부당하게 매도한 '사실'과 '해설기사'가 김씨의 방백과 아울러 극치의 '3월1일'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가.

김지하씨는 그것까지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사실 김지하씨의 '명성'과 '영웅심'이라는 기준만을 놓고 따진다

없는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의 감옥살이를 쓰도록 되
었고 있는 난 항소심에 커다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명명백백한 증거들보다도 검찰서 조가리를 더욱 신뢰
하고, 사실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줄 모르는 재
판관들이 버티고 있는 한, 해독은 '정치재판'의 오욕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 자진출두하던
지난 6월 24일 출두성명에서 "내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수사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때를 회상하면 격세지감을
느릴 뿐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 되
어버린 '유서사건', 드레퓌스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서사건'은 의외의 변수들이 결합작용을 하면서 사
건을 드라마틱하게 전개시켜가고 있다. 진실은 온세하
러는 자들의 몸부림 속에서 환연한 객관적 사실의 단
초를 일대한다던가, 3명이 쓴 업무일지들 유서의 필적
과 같다고 감정한 국과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를 망신이라도 시킨 듯이, 바로 국과수 그 사람이
너무나 받고 허위감정을 해준 혐의(이상의 확인된 사
실)로 구속되었다.

이제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 양식이 있는 모든 사
람들은 유서대필이라는 허황된 시나리오를 믿지 않는
다. 나아가 '유서사건'이 검찰과 국과수라는 공권력을
병자한 기대한 복력이 만들어낸 피선이요, 국가권력의
인위적 위해 한 개인에게 돌리워진 누명이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안다.
허위감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 막음식 수사와 제보
자에 대한 보복구속은 스스로의 죄과에 대한 자백이다.
'죄물은 받았는데 허위감정은 없었다'는 검찰의 강변,
그리고 김 실장에 대한 사라졌은 배려는 자신들의 죄
악을 은폐하기 위한 단발마직 비명이다.

'내 사건에 관심있는 분들은 요새 내게 이렇게 묻는다.
"죄물감정 사건으로 이제 무죄로 나가는 게 아니냐"고
속으론 동의할 하고 싶어도 '눈 가리고 아웅'이 봉하는
우리 현실의 벽을 느끼는 순간 몸이 굳어버린다.
'글쎄요' 하고 애매하게 말을 흐리는 내 가슴은 벗어질
듯 아프다. 누가 이런 당연한 믿음과 기대에 계통을
걸어놓았는가. 그러나 실낱 같은 희망에 몸과 마음을

기대고 있는 이 최장날의 좁은 공간에도 대자연의 변
화가 찾아오듯이 실종되고 만듯한 상식도 회복될 것
이라고 믿는다. 지난 1심 선거공판이 있던 91년 12월
20일, 어이없는 판결을 받고 돌아서던 나를 보며 눈물이
규명하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던 한 교
도관의 진실한 마음처럼, 사실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1심 판사 중 한 분이 나의 무죄를 믿고 그의 어머니에게
나의 무죄선고를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그 순수한 마
음처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은 한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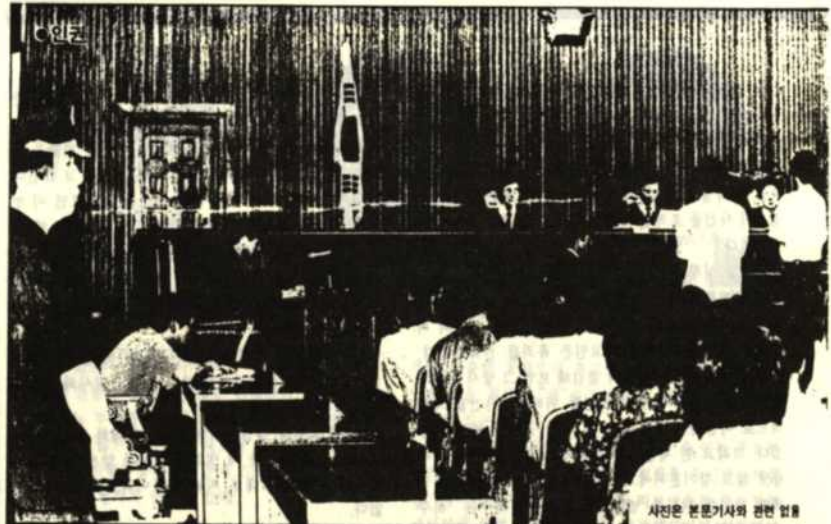
신문보도를 통해 3월 12일 첫 재판이 열린다는 소
식을 들었다. 또다시 그 억지논리를 반박해야 하는, 그대
시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책임감은 일종의 고통처럼
내게 다가온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이들과의 대면,
몇 번이고 욕 하고 울려오는 감정을 추스리느라 몸도
마음도 걸레처럼 늘어진 채로 돌아오곤 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며 '이번만큼'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한시름을 놓아보려 애쓴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하늘을 우러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
까?" 하고 절규했듯이,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세 이인
고통의 수렁에 빠진 당사자가 되었는가 하는 대상 없는
현명도 이따금씩 내 의식을 지배한다. 하지만 내 양어
계에는 진실의 승리, 상식의 회복이라는 절대정명의
과제가 함께 얽혀져 있다.

도저히 피해할 수 없는 한판 승부,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나만의 기쁨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서울구치소에서 시초동을 오가
던 그 차 속에서 음용했던 기분을 일신하기 위해 「환
희의 송가」를 입 속으로 부르곤 했다. 여러모로 변화된
조건의 이 안양교도소 밖에는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면서 봄을 재촉하고 있다. 창문을 열고 「환희의
송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대자연의 숨소리가 점점 뜨거워져가는 계절의 변화
를 매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 생
활은 이렇게 한 변화 없이 늘상 그대로이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안사류 전하며
이만 줄인다.

1992년 3월 4일
안양 호계동에서 강기훈 올



사건은 본보기사와 관련 없음

강기훈을 유죄로 만든 판검사들

운동권의 도덕성과 공권력의 권위를 견고 1년 넘게 법정에서 공방전을 벌여 온
유서대필사건은 재판부가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강기훈씨를 유죄로 만든 판사·검사들은 누구이며,
이들에 대해 역사와 국민들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전미숙(자유기고가)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강기훈

지난 7월 24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
는 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
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강기훈씨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
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철씨의 자살 직전 행적과
유서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김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
으로 보기 힘들고, 전민련 측에서 제시한 수첩이나 업

무일지도 의형이나 내용면에서 변조된 흔적이 뚜렷하
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
정한 결과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강
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공권력의 권위'와 '계야 운동권의 도덕성'
을 놓고 1년 2개월 남짓 계속된 유서대필에 관한 공방
전은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단은 공권력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이른바, '유서대필공방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
건은 강경대서 타살사건으로 풀이오른 전국민적인 민
주화의 열기에 단번에 환풍을 꺼졌을 정도로 민족
민주운동권에 일대 타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후 전민연에서 강씨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물을 속속 발표하고, 검찰이 유죄의 논거로 삼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내용이 책임자인 김형영씨의 구속(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사건)으로 신뢰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일반 여론의 향방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처럼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만은 이 모든 것에 아랑곳 않고 강씨의 유죄를 변함 없이 확신했으며, 그들의 확신처럼 상고심에서조차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찬찬히 점검해 보면 당시 수사에 물론 정치권력이 정세의 역전을 위해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재판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이러한 의도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하수인'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한 것이다.

보수·무능력·해바라기성 인사로 구성된 재판부

실제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검찰측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권력층의 이러한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인물의 선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게다가 1년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강기훈=유서대필=유죄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둔 채 증인신문이나 증거제출 등 모든 법률적인 절차에 임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우선 재판부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치권력의 의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범조계에 밝은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엔 권력 정권의 조작사건에 사법부가 하수인노릇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수적인 법관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맡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특징은 △운동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 △국가권력의 허황식 판결주문에 결코 반발하지 않을 유약한 해바라기성 인물 △능력 있는 검사의 수사내용을 순순히 인정해줄 법률적 능

력이 뛰어나지 않은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강력부 검사 중에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근성을 가진' 인물이면서 권력핵심의 의중을 꿰뚫을 수 있는 TK출신으로 구성된 것이 그 특징이다"고 밝힌다. 실제 재판부와 검찰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이 인사가 지직한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서사건'의 재판부는 1심의 경우 노원옥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정일성·이영대 판사가, 2심은 임태화 부장판사와 윤석중·부구옥 판사가, 3심은 박만호 대법관이 주심판사를 맡았다.

검찰측에서는 강력부의 강신욱 검사의 총지휘 하에 신상규 검사가 주일검사를 맡고 송명석 검사와 윤석만 검사가 실무를 도왔다.

1심의 노원옥 부장판사와 2심의 임태화 부장판사는 그간의 경력으로 볼 때 범조계 인사가 앞서 지직한 재판부의 특징을 그대로 지닌 인물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노원옥 판사는 1936년 평북 선천생으로 서울고졸 나와 55년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한 뒤 다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61년 졸업했고, 10년 후인 71년 36세의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이다(사법고시 13회).

노원옥 판사와 함께 1심을 진행했던 배석판사인 정일성·이영대 판사는 30대 초반의 판사들. 정일성판사는 58년생으로 81년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다음 해인 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이다(사법고시 24회). 이영대 판사는 55년 전남 진도생으로 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이다(고시 25회).

범조계의 인사는 노 판사의 특징을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었고, 눈에 띄는 일이 없었던 평범한 판사이지만, 이복출신답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했다.

노 판사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다소의 부담감이 있었던 듯 지난 해 12월 5일 심리할 중결한 후에도 "확실한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며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를 내린 후에도 "신이 아닌 인간의 판결임을 이해해달라"며 확신없는 판결임을 스스로 시인했다.

게다가 노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배석판사들은 고개를 떨구며 방청객들의 시선을 외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석판사 중에는 강기훈씨의 무죄를 확신했던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노 부장판사는 신고 당일까지도 유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판진행과정에서는 눈에 드러날 정도로 검사편을 들어 방청객의 빈축을 샀다.

판결문을 읽으며 고개 숙인 1심 판사들

변호사와 검사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일일이 개입해 검사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보조원이다'라는 모욕적인 비판까지도 받았는가 하면 법원서기가 작성한 공판조서 초고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문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실제 1심 공판조서를 보면 중요한 대목에서 변호인에게 고지되었던 공판조서 초고와 그 내용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공판조서에 의하면 김형영씨는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공판조서 초고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것.

1심 공판조서 중 김형영씨 신문내용 부분(94쪽)을 보면 "증인은 위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을 아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김형영씨는 "감정 당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하였습시다"라고 대답해 3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서기가 피고인

측에 제출한 공판조서 초고에 의하면 김형영은 변호인의 같은 질문에 "예"라고 분명히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변호인이 강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제출한 업무일지가 당초 검찰측 수사발표처인 강기훈씨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측의 주장처럼 세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감청책임자인 김형영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 한편으로는 업무일지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유죄판결 이유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따라서 김형영씨의 이 진술은 이번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기 임의로 고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1심 재판부의 경우 공판조서를 기술적으로 다듬는다는 명목에 검찰측에 불리한 어감의 문장이나 어휘를 교묘하게 바꿔놓는 식으로 편파적인 행동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판조서를 위조하기도

2심을 맡았던 임태화 부장판사는 1942년 충남 대덕생으로 대전고(59년)와 서울대 법대(63년)를 졸업하고 63년 제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73년 한동안 변호사개업을 했다가 80년에 다시 판사직으로 돌아왔다.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68년),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71년), 광주고법 판사(80년), 서울지법남부지위 부장판사(85년) 등을 거쳤다.

2심 배석판사인 윤석중 판사는 54년 서울생으로 한국외국어대 법학과(76년)를 졸업하고 78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시 20회. 부구옥 배석판사는 52년 부산출생.



박인호 대법관(3심) 강신욱 부장검사 송명석 검사

경기고(70년)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7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시 21회.

1. 2심 공판을 빠짐 없이 참여했다는 제야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정권해임부의 주문 때문에 확신 없이 유죄선고를 하면서도 다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검사의 편을 들면서 시종일관 유죄를 확신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자신의 방청소감을 털어놓았다.

실제 임태화 부장판사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씨의 2심을 담당했는데, 이때에도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부분까지도 오히려 더 나쁘게 해석해 빈축을 샀던 인물. 특히 1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한편에선 동요의 흔적을 보였던 점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시종일관 유죄를 확신하는 태도로 재판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조계 경력으로 볼 때 임태화 판사는 중요 사건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확고한 보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측 증인에 대해 노골적인 불신을 나타냈고, 전체 운동권을 마치 범법집단인양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보수성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송홍씨, 이보은씨, 이지혜씨 등 피고인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송홍씨는 군복부 시절 검사와 30여명의 편지를 교환할 정도로 절친한 친구로 검사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한씨가 판사와 검사의 의도적인 유도신문에도 불구하고 "유서는 분명히 김기철이

쓴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자, 필적감정도 아닌 증인에게 임 판사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송홍씨가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 몇명의 글씨꼴은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건 너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냐? (방정식 웃음)"라며 증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증인이 "자신은 김기철의 필적을 잘 알며, 유서 필적은 김기철의 것이다"라고 거듭 답변하자 "정말로 확신하느냐"는 의미의 질문을 무려 10여 차례나 반복해 방청객으로부터 "당신이 판사나 검사냐"하는 야유를 받기도 했다.

또한 전민련 실무자인 이보은씨에 대한 신문에서는 이보은씨의 부친인 이해학 목사가 통일운동관계로 구속된 사실을 새삼 거론하면서 통일운동인사들을 마치 범법자인양 호도했고, 게다가 그런 범법자 딸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까지 했다.

게다가 이지혜씨에 대한 신문에서는 이에 한 술 더떠 이지혜씨가 본인 하루 전날 김기철씨와 송국영씨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간단히 술을 마셨고, 그후 함께 여관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자 "술취하면 말이 많아 술을 더 마셨죠?"라는 질문을 세번이나 연달아 하더니 "남녀 사이인데, 굳이 여관에 갈 필요가 있느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등 운동권은 혼숙마저도 거리낌 없이 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방청석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결국 임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유감없이 드러낸 보



강기훈씨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선고와 정희호를 판결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수성에 걸맞게 검찰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당시 임 판사가 검찰측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판결문을 확신에 찬 어조로 읽어나가자 김장국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3명이 판결에 항의하며 퇴정했고, 방청객들도 재판부에 야유를 퍼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또한 강기훈씨도 퇴정을 막는 장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퇴정해버려 법정문은 그야말로 폭대발 같은 분위기였다.

2심 판결문 베껴온 상고심 판결문

3심을 담당했던 박인호 대법관은 1, 2심 재판부와는 달리 TK사단의 선두주자로 법조계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로 1936년 경북 의성 출생이다.

경북고(56년)와 서울대 법대(62년)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시절인 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64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78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79년 서울지법남부지원 부장판사, 8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84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유신말기와 5공화국 초창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술한 시국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오랜 기간 동안 공판이 진행되는 1, 2심과는 달리 3심은 선고공판만 한 차례 열리는 탓에 마무리 작업을 확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평소 손발이 잘 맞는 TK인사가 재판부를 맡은 것 같다"고

말하며, "2심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온 3심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에 정말 절망감을 느꼈다"고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 인사는 "3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마지막 법적인 권리인만큼 1, 2심의 판결내용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론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3심 판결의 경우 2심 판결문의 거의 모든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면서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유죄선고를 강요하는 정치권력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스스로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알아서 기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유서사건 수사를 전두지휘한 검찰의 인적인 구성은 한 마디로 손아귀에 들어온 먹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건검사의 근성을 가진 TK핵심 인사가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강신욱 부장검사는 1944년 경북 경산생으로 경북고(63년)와 서울대 법대(67년)를 졸업한 정통 TK인사로 68년 제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검영동포지청 검사(73년), 서울지검 검사(80년)를 거친 후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하다가 마약수사과 정에서 탁월한 수사실력을 인정받아 83년 서울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신상규 검사는 1949년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72년)를 졸업하고 79년 제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81년 수원지검검사, 83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검사를 86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쳤으며 이번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았다.

송명석 검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75년), 서울대 법대(79년)를 졸업하고 81년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86년 광주지검 검사 등을 거쳤다. 윤석만 검사는 1957년 충남 대진 출생으로 대전고(75년)와 상관연대 법대(81년)를 졸업했다. 83년 제25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8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유서사건의 전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검찰측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수색에 몰린 분신정국을 정권측에게 유리하게 반전시키기 위한 신속한 대처, 불법·강압·희유와 은폐·조작·뺑뺑이로 얼룩진 수사과정, 자신의 손에 들어온 피고인은 죄의 유무를 떠나 자신들의 논리로 철저히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속성, 운동권은 모두 공산주의자이며, 범법자라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사고 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검찰 측에서는 김기철씨의 분신이 있고난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강기훈씨를 이미 자살방조범으로 지목하는 면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해 5월 9일 김기철씨의 필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안양시 호계2동 동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당시 영장에 이미 강기훈이 자살방조범의자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강대 박흥 총장의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 운운 하는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자살방조로 조작할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김기철씨의 애인인 홍성은씨를 1백시간 동안 불법감금해 수사하면서 강씨를 유서대필자로 만들기 위한 사실상의 증거조작에 나섰다.

역사와 국민들이 잊지 않을 재판부

게다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 중 검찰측에 유리한 증거, 이를테면 중학교 시절 김기철씨가 쓴 장자체의 글씨가 10년 후에 쓴 난립체인 유서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마치 유서필적이 김씨 필적과 확연히 다른 결정적인 증거인양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뺑뺑이해 노련한 언론플레이, 실력을 과시했다. 반면 김씨의 군대시절 필적이 유서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자 1심 재판이 끝나갈 때까지 철저히 숨기다가 검찰이 필적

조사차 군대를 찾았을 당시 군법부관이었던 이찬진씨가 제대 후에 변호인측에 알림으로써 들뜸이 나기도 했다.

검찰의 이러한 행동은 유리한 증거는 뺑뺑이해서 널리 알리고, 불리한 증거는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이는 검찰이 진실규명따위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고 강기훈=유서대필=유죄라는 자신들의 목적달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너무 불분명한 것은 변호인이 군대에서 입수한 필적의 공개를 요구하자 "안기훈 검사가 마산으로 내려갈 때 가져갔다"는 변한 거짓말로 발뺌을 하다가 변호인측의 공개요구가 거세지자 배시밀리로 송고받은 필적에 다시 덧칠까지 해서 공개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민련 실무자인 임무영씨에 대한 혹독한 수사와 연이은 보복구속, 자신들의 강압수사를 통해 끄집어 낸 증언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홍성은씨를 피고인측과 언론으로부터 끝까지 격리시킨 점 등 이번 사건수사를 통해 검찰이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은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이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 유서대필에 관한 실제적 진실여부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재판부와 검찰의 인적인 구성과 그리고 그들이 그간 펼친 불법적인 수사과정, 그리고 편파적인 재판과정만 봐도 재판부의 복수를 꾀고 있는 정치권력층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의도적인 조작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실규명에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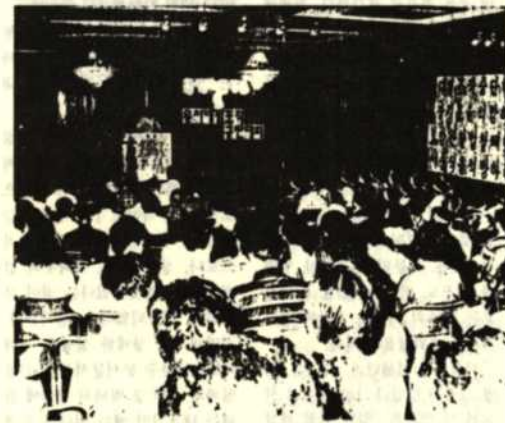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으로 불리워지는 '유서대필 방방사건'은 3심 재판부가 강씨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일단 법률적인 판정은 끝이 났다.

그러나 한 꽃다운 젊은이의 자기헌신적인 분신을 비인간적인 동료의 자살강요에 의한 원치않는 죽음으로 돌아가서 결국엔 동료의 죽음을 앞에 망연사건해 있는 또 다른 젊은이마저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버렸던 재판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원했던 많은 국민과 역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유서대필사건' 재판기

드레퓌스의 무죄와 강기훈의 유죄(?)

이석태(변호사)



지금부터 약 1백년 전인 1894년 12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나는 결백하다"라고 진규하는 유대인 젊은 유군장교 드레퓌스에게 변의죄를 인정, 종신유형형을 선고했다.

독일대사관 쪽에 군 기밀을 은밀히 알려주는 비밀문서가 프랑스 군 정보기관에 의해 압수되었

는데, 그 문서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 판결은 드레퓌스에게는 정직한 군인으로서의 명예, 젊은이 재산, 가족과의 단란한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는 엄청난 재앙의 시작을 의미했다.

또한 프랑스 국민에게는 사법

부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짓과 불의의 편에 서 있을 때, 진실과 정의의 저변에는 것이 일어나 힘들고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판단해 주는 시금석이 되었다.

이 판결은 그후 상급심과 재심을 거치는 등 정장 12년 동안 계속된 재판 끝에 번복되어 마침내 드레퓌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는 복권되었다.

강기훈과 드레퓌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일컫어지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1심 재판이 작년 12월 20일 끝났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이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강기훈씨에 대해 강씨가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유 선고했다. 작년 5월 18일 강씨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가 검찰 발표로 처음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온 끝에 일단 1심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8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연차례에 걸쳐 열린 재판에서 제출된 검찰측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

하(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가 유일한 것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구제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유서를 대필했다는 것인 지 공소장에 기재조차 하지 못했다.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의 요지는 강씨의 필적과 유서를 비교해본 결과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본식 실장 김형영씨는 법정에서 증언하며 본인도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했으며, 국과수의 필적감정 확보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작성한 감정서의 내용은 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원비경, 확대경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필적을 조사해본 결과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기재하고, 감정서 밑에 몇 가지 사진 사료도 첨부하였다. 이번 논리의 논거에서 양자가 같다고 보느냐의 문체에 관한 설명은 없었으며, 법정에서도 그에 대한 증언은 없었다.

한편 변호인들은 20여 종 이상의 필적자료들 중기로 제출하였는데, 관련 증인으로 심수병의 증언을 신청하여 증언을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언론조차 비난한 유죄판결

강씨 사건이 최근에 그렇게 언론 보도의 초점이 되고 국민의 이

목을 끌었던 까닭은 범죄의 혐의가 자살자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특이한 사실 외에 강씨가 사종일 칸 길백을 주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변호인이나 강씨 자신을 제외하고 과연 제3자가 받을 만한 것이었는가, 이 점에 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날의 언론보도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강씨에 대해 검찰의 유서대필 혐의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부터 강씨는 날마다 실제로 본인자살자의 유서를 대필한 파렴치범인 것처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초기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태도에 비추어 만일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가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법원의 유죄판결은 의문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고 모든 언론의 지면은 검찰의 승리 기사로 배워졌을 것이다.

사실이 그러했는가, 아니다. 분명 그렇지 않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날 언론은 '일단 검찰 판정을, 대필 여부는 미궁'이라는 제하에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죄를 확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과수의 필적감정가는 법정에서 자신이 잘못 감정한 부분이 있음을 밝힌 채 감정기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어쨌든 1심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결과 및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에 신빙성을 두었지만 대필 여부는 여전히 미궁속에 빠져 있어 앞으로 2심 및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라고 보도하였다(국민일보 91년 12월 21일자 등).

이 보도는 1심재판 진행을 통해서 나타난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믿을만한 게 못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언론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혹을 표시했지만, 강씨를 변호했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적어도 1심 재판이 같은 무덤 변호인단에 의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잘못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반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면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국과수 분석분석실장 김형영씨의 증언 중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다.

국과수의 치명적 실수는?

김기실씨가 본인자살한 후 친인척 인권위원장인 서준식씨는 김씨의 유서필적을 확인하겠다는

업무일지가 감정의 목적물로 처음 국과수에 던져진 것 자체가 국과수에게는 일종의 불운(?)의 전주곡이었다. 왜냐하면 국과수는 업무일지가 1인에 의해 작성된 것을 전제로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하다는 판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 제출된 업무일지는 사실은 세 사람에게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생전에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5월 13일 서장으로 된 업무일지에 대한 필적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국과수가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한 필적감정이 바로 유서와 이 업무일지의 필적이었었다. 국과수는 이를 뒤인 5월 15일 유서와 업무일지를 동일 필적으로 회보했다. 그후 유서와 업무일지 및 강씨가 경찰에서 쓴 자술서 등이 모두 동일 필적으로 감정되었다.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 필적이라는 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유서와 업무일지가 모두 같은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유서가 김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업무일지 또한 김씨가 작성한 것이 되고, 강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이라면 업무일지는 강씨가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처음 한 감정이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첫 감정이니 만큼 비교적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을 터인데도, 이것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국과수의 감정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업무일지가 감정의 목적물로 처음 국과수에 던져진 자체가 국과수에게는 일종의 불운(?)의 전주곡이었다. 왜냐하면 국과수는 업무일지가 1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전제로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하다는 판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 제출된 업무일지는 사실은 세 사람에게 의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모르고 1인이었던 줄 알고 감정에 입힌 것, 이것이 국과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세 사람의 글씨를 한사람이 썼다고 우긴 국과수

두번째 불운은 이와 같이 3인에 의해 작성했다는 사실이 국과수 감정이 끝난 후 약 2개월 뒤인 7월 초순경에 이르러 강씨 자신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한 이후, 검사로부터 업무일지 작성자가 강씨가 아니냐는 추궁에 유심히 보다가 뜻밖에 석장으로 된 업무일지가 그 첫째장은 전민련 동료인 이동진, 둘째장은 김기실 및 마한가지로 전민련 동료인 임우영, 마지막 셋째장은 김기실에 의해 각각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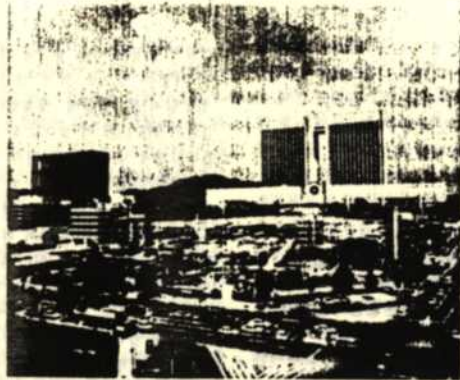
업무일지가 1인에 의해 작성된 줄로만 알고 유서와 동일 필적으로 감정하였던 국과수가 뒤늦게 업무일지의 작성자가 3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었는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

했다.

진민권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기철씨의 분신자살 직후 김씨의 필적으로 제출한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사실은 결과적으로 업무일지가 조작된 것이 아닌 동시에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반증이 된다(김철은 강씨가 업무일지를 조작하여 김씨 필적인 것처럼 꾸며 세습했다고 주장해 왔다).

국과수는 아마도 이때부터 강씨 발대로 업무일지가 3인인 사실을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자니 국과수 감정결과 전체가 공신력을 상실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이걸 부인하자니 명백한 사실에 반하여 진부양나이었을 것이다. 국과수의 고심끝남은 1심 범정부 국과수 문서분석 실정인 김기철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심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계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김기철씨가 증언하는 날이 왔다. 변호인은 "유서와 진민권의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런 감정소견은 두 문서가 동일인이 썼다는 뜻이나"고 불었더니, 김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이어서 업



무일지가 세 사람에게 의해서 작성된 사실을 아느냐고 불었더니, 김씨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감정의 비 발을 당시 업무일지의 "앞장 글씨와 둘째장 다섯째간의 파란 글씨로 기재된 부분"이 각각 다른 글씨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작성된 사실을 감정의 비 발을 당시 검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김기철씨의 이 증언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돌이킬 수 없는 허위진술이 되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감정할 당시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검사가 그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증언처럼 그렇게 "앞장 글씨와 둘째장 다섯째간의 파란 글씨로 기재된 부분"이 각각 다른 글씨인 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적어도 다음과 같이 감정소견을 제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일지는 3인에 의해 작성되었는 바, 맨 앞장과 둘째장 다섯째간의 파란 글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은 한 사람의 것으로서 동일 필적이다."

다시 들려오는 예밀물리의 외침

사실 당시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던 나는 김기철씨의 그 솔직담백(?)한 허위진술을 듣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커다랗게 통증을 느껴서였다. 국과수의 감정능력과 양심의 실재를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진술은 그가 뭐라고 변명하던 간에 첫째로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로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언론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똑똑히 목격하였기에 범인이 유죄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필여부는 미궁"이라고 보도했던 것이 아닐까. 김씨의 증언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절차가 끝나고 선고할 기나리고 있을 때, 나는 이처럼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모른 채하고 강씨에게 유죄선고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드레뤼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권력의 권위와 국가기관이 갖는 공신력의 훼손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한 데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의 권위는 국민의 상식이 양심 및 진리의 집합체이다. 만일 공권력이 그것을 근거지워 준 국민의 도덕적 바탕과 유리되어 제멋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함부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더이상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권력이 아니다. 폭력이다. 드레뤼스 사건에서 범인이 드레뤼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음에도 예밀물리는 이렇게 외쳤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입니까! 한 인간이 그러한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나는 양심있는 사람들에 게 그 판결을 알고 분노에 떨지 않을 것, 악마도의 심에 유형당한 한 인간의 초인적인 고통을 보고서 억울하고 외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강기훈씨의 무죄선정에 대해, 그리고 유서대필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진지한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는 데에 조금의 의혹이나 의심도 없다. 강씨의 변호인단 중 강씨의 결백을 믿지 않은 변호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확신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사법조직에 있어서 국과수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과수에서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갖추는 때에만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범인이나 검찰은 적어

도 어리가지 증거나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한 감정결과만에 의해 사건의 전말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법과 권력의 한판 승부가

프랑스에서는 지금 '법과 권력의 전쟁'이 한창이라고 한다. 우리도 언젠가 정부에서 '법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북미권 정치 권력을 상대로 사법부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관한 92년 1월 23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법', 당위이면서도 흔들리기 쉬운 이 원칙이 지금 프랑스에서 시험받고 있다.

위르바 사건이라는 정치적 스캔들을 파헤치고 있는 소장법관들이 정치권의 위기에 끼어들고 있어 그 귀추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위르바 사건이 노출된 정치적 계기는 프랑스지역 당인 장피에르(36세) 예심판사의 노력 때문이었다. ... 하지만 장피에르 판사는 수사권 남용을 구실로 수사권한권을 막당했다. 이때 프랑스 법조계가 지식층에서는 '결국 법이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라는 우려가 속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기우였다. 후임인 부임베트 판사



결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들이 제출한 고 김기철씨와 강기훈씨의 20여 종이 넘는 필적사료에 관하여 국과수에 감정회할 것을 촉구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쓴 웃음이 나온다(1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김형영씨의 허위감정의 예를 들면서 국과수에의 감정을 기절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위법적들에 관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측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였는바, 변호인들은 강력히 이에 불응하였다'고 판결문에 쓰기까지 했다). 담당 재판부가 국과수의 비리에 관한 요즘의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과수의 공신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의혹이 제기된 비리의 모든 것이 낱알이 밝혀져, 새로 태어나는 김박에 있다.

는 장비에르보다 한술 더 떠 사회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수색은 프랑스 정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으며, 미테랑 대통령의 신뢰에도 큰 흠집을 냈다. ...프랑스 소장 범조인들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믿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실정을 생각하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중에 연일 신문과 방송이 김형영씨가 국과수의 감정에서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했

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김철도 진면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마침내 2월 11일 김형영씨가 한 필적감정 결과가 바탕이 되어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부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시 진실의 행군은 시작되고
김형영씨가 보도대로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주었는지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1심 법원이 변론종

이제 2심이 곧 시작된다. "나는 궁극의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을것"이라고 예언 줄라는 그 유명한 고발장에서 덧붙이고 있다.
우리로 이제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강씨 사건의 진실도 이제 막 행군이 시작되고 있다. 그 누구도 이 행군을 막을 수 없다.(*)



특 집

강기훈씨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전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유서사건' 직후인 지난해 5월 '김기철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한 결과 강기훈씨는 유서대필을 하지 않았다는 실정을 알았으며, 또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의뢰해 일본의 저명한 감정인 오노시 오시오씨가 '김기철과 강기훈'의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을 허기에 이르렀다.

본회는 현 정권에 강기훈씨의 무죄확인을 권고하였지만, 현 정권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본회는 강기훈씨의 결백을 알으며, 그의 무죄확인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본 특집에서는 강기훈씨의 항소이유서와 어머니의 실정을 담은 글과 본회를 비롯한 12개 단위로 구성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확인을 위한 공동대행위원회가 사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실는다.

◎ 강기훈씨 항소이유서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밟습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이 지하에 묻히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가장 먼 곳까지 제발을 미치게 할 지지를 예심했는지 아닌지를..."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중 「드레퓔스와 지식인」 한길사 간에서 발췌함.

'심마 무고한 사람에게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너무나 명백한 진실과, 사실을 용변해 주는 수많은 증거를 두고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영타리 필적감정을 인정하였는가.'

제가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차에 걸쳐 포일동 산사바라 서초동을 오가며 수없이 되뇌이던 상념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고 제각각 알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회에 한 사실재판과 역심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을 한낱 한자의 고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진실이 한푼도 비치지 않고 허위와 가식이 판을 치는 재난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과정 전반에 걸쳐, 이미 결론을 예상하고 있는 듯한 재판부의 발을 들으면서도 실마렸던 상식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여지없이 깨어져 나가며 그간에 한가닥의 희망을 바운 헌연에 담고 좌무하루를 감내해 내던 한 인간과 그의 가족을 더욱 치열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순간이었습니 다. 구치소로 돌아와서 몇 시간을 반정신병자처럼 병하니 있었고, 밤엔 남몰래 숨죽여 흐느끼며 오열하다 지낸 하루, 다음날 '도대체 법원에는 반년이 판단력 불구사들만 있던 법인가'하는 불끈불끈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추스리며 항소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대 너희들이 죄주려는 이 글자를 복수의 마음으로 감내하리라'하는 항소를 포기해 버리자는 감정적인 생동을 꾸-욱 누르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12년간에 걸친 싸움 - 드레퓔스 사건에서 조르주 칼레망소가 외쳤던

고 죄값을 통해서 받습니다.

"국가 이익, 오늘 그것은 드레퓔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자를 칠 것이며, 국가 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싸움으로 끌어버릴 것이고, 국주는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이익을 내세우면 끝이 없기 마련이다... 만일 그것이 드레퓔스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게 분명하다..."

저는 소위 '유서대필'에 관한 한, 제 모든 것을 걸고 무죄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렇기에 무고한 제게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있어 검찰, 국과수와 함께 공동 정범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가권력기구에 의해서 저지러진, 무고한 한 인간에게(그것도 제아민주화운동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작년 5월의 국민적인 항의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과립 처벌의 땅을 썩은, 천인공포할 범죄행위에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왔던 사법부도 그간와 생보에 걸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범죄자의 대역에 합류하였다고 규정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한다"고 합니다. 제 양심에 비추어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데도 찍혀진 유서대필 혐의...

어찌면 승승기마처럼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한 이런 현실과 0.7명의 안양교도소 독방에서도 저는 자유인임을 선언합니다.

누가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가. 1심 최후진술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검찰의 수사진행과 그간의 행태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범주계의 격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수사담당 검사 자기는 "열 사람의 죄인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지 않겠다"며 자신만만한 어조로 위의 격언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검찰청사 안이었다는 현실 때문에 그 내색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무고한 나를 잡아넣은 것은 그 말과 위배되는 않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66
 "암담하기만 한 이런 현실과 0.7명까지의 교도소 독방에서도 저는 자유인임을 선언합니다."

법원의 공신력 - 판결문에 대한 감상(7)

지나간 수사과정과 특히 재판과정을 되돌아 볼 때마다 치밀이 오르는 분노와 허탈감만이 교차되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왜곡해 낸 치졸한 주제(재판부 또한 영 무색처럼 인용하고 있는)들을 일일이 재기론하여 사실을 있는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으로 총화되어 있는 '검찰 조사 범행 작곡'의 허위의 덩어리를 하나하나 깃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제 어깨에 짊어진 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머지않은 시간이 지나 凡人들에게도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그 허위의 덩어리 - 판결문은 오늘 이 시간의 자그마한 노력으로부터 해체되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며 하나씩 기쁜하도록 하였습니다 (물어낸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제게 전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부분은 항소이유 보충서로 비워둡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곡 무성이인 1심 판결문이 왜 허위인가는 그해답의 대부분이 1심의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놀라우리만치 어둔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1심 재판부의 그 후안무치를 탓하기 앞서 어찌면 자율적 판단을 저해하는 각종의 요소들에 시달린 그들을 일견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내용의 판결을 받으려고 12차례에 걸쳐 재판에 임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재판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혹은 그토록 믿고 싶었기에) 어지간한 일도 참아넘기고, 예의를 지키려 애썼던 것까지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도

대체 이땅의 사법부의 권위와 법의 공실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권의 시나라는 해박은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판단을 검찰에 위임한 듯한 사법부는 정녕 피의자가 아닌 검찰의 권일 뿐이며, 그러면서도 독립기관임을 내세우고 법의 권위를 법이 사부심을 갖습니까?

.....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었던 대지가 스스로 눈세 닫아걸었던 표면의 모공을 열어 세치고 한껏 호흡하면서 생명의 새박을 되워내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발 중에서 좋고 반가운 소식을 일컬어 '봄소식', '꽃소식'이라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안양교도소에도 반봄의 새 기운이 0.7cm 폭방 직립한 가로세로 창살틈으로 자랑스럽게 비쳐돌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한 낮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고 있노라면 주책없이 풀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한가로운 마당 한편에서 노닐고 있는 비둘기 떼들과 수선스런 참새 떼들의 재잘거림이 하염없이 터져나오는 노여움의 파도불 잊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서대필'이라는 너무나도 일침난 수명을 뒤집어쓰고 간혀 있는 한 인간의 허무허무 생활의 대부분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슴이라도 활짝 갈라놓고 "내 양심과 진실을 보시오"라고 하고 싶은 이 심정은 어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땅에 사는 아픔을 가진 자의 절규입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후의 일입니다. 제가 있던 서울구치소로 제게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종교계의 소개였었습니다. 그안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강기훈씨 사건을 담당했던 한 재판부의 판사 중 하나가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강기훈씨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유죄판결을 받았을까요? 판사의 판결을 뛰어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년 12월 20일 제가 유죄판결을 받던 그날 저의 호송책임자를 맡은 한 교도관은 신고 직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세상의 이법 수가 있을까요?"라며 처연해진 눈빛을 제게 던지면서 말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미담 속에서도 진실은 속직없이 찾아오야 한다는 것을... 드레퓌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는 그를 법정에서 세웠던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부의 판사 중 하나가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강기훈씨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드레퓌스가 결백함을 나는 명백히 주장합니다. 나의 생애와 명예를 걸고 확인합니다... 나의 작가생활 40년과 평생의 작업으로 획득한 모든 것을 걸고서...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이룩한 명성... 만일 드레퓌스가 결백하지 않다면 신(神)이여! 이 모든 것이 파멸하고 나의 작품이 잊혀지도록 하소서!”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 100쪽 중 발췌)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명동성당 농성중에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런 글을 써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모든 것, 제 양심과 명예를 걸로 저는 대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 묵숨과 명예, 모든 것을 걸고 저는 동료의 유서를 대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합니다. 소위 검찰에서 말하는 '운동권'의 일원들은 평범한 인간들과 똑같은 생각과 상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글은 강기훈씨 '형사유서'를 발췌한 것이다.

강기훈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고등법원장 및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작년 5월, 검찰에 의하여 발표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공 최대의 위기'로 일컬어진 강경대 학생 타살정국 한 가운데서 발표되어 제이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면서 그 위기정국을 반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던 이 사건의 정치적 위상에 비추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문제의 그 유서를 남기고 김기철씨가 본신자살을 한 바로 직후부터, 기초적인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후세력에 의한 본신자살 조종"이라는 이상 많은 예단을 공공연히 언론매체에 발표했던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벌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공권력의 위신이 걸린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기란 언제나 대단히 어려운 꿈이었음을 우리의 현대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검찰 수사는 결코 공정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범정시한을 넘기는 불법수사가 다반사로 감행되었으며, 특히 1심 재판에서 강기훈씨 유죄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홍성은씨의 검찰조사는 놀랍게도 100시간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주시해 온 우리는 우선 강기훈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서를 대필했다는 시기, 장소, 경위 등 그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물로 구름을 잡는" 듯한 이 모호함으로써 한 인간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감각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

리는 공권력이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한 인간을 기어이 재물로 삼고야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만은 진실이 밝혀지고 끝내 강기훈씨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천진스러운 기대를 해본 것은 유서대필과 강기훈씨 범죄가 근본적으로 달라 강기훈씨의 결백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일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의 결과는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땅히 기각되었어야 할 이 '그물로 구름잡는'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강기훈씨를 범죄자로 단정해버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한 우리의 양식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미심쩍은 필적감정을 유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버렸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결코 감을 수 없는 유서필적과 강기훈씨 필적을 낚듯한 아무런 설명 없이 "같다"고 감정했던 그 기판에 대한 우리의 의혹은 이 판결로써 사법부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설명 양자 필적의 동일특징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왜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비약이 감행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는 홍성은씨의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필적검출 대신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요컨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비약과 억측과 강변으로 가득차 있으며, 검찰의 억지 주장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변호'해 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판단이 객관

적 권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면
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피고인에
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변론 요지를 읽
어나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사법부의 위기
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
감정 비리사건은, 황급히 불을 끈 검찰의 축소 은폐 수
사에도 불구하고 벽어문드러진 감정업계의 추악한 모
습뿐만이 아닌, 사실상 '유서사건'의 진상까지도 백일
하에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기훈씨 필적을
감정한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를 1심 재판부가 "최고
권위자"라고 극찬을 하거나 말거나 또한 검찰이 "너를
받은 결백"을 주장하거나 말거나 국민들은 그가 '국립'
과 '과학'의 이름을 도용하여 무슨 짓을 저질러왔는지
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흔히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덮어버리려
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입각하고 있으며, 폭
력으로써 공권력의 위신을 새우고자 하는 기도는 항상
사법부까지도 공범으로 끌어들이면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비방으로 불고가게 마련입니다. 드레위스 사

건은 우리에게 이 전리를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
다. 공권력의 위신은 강압이나 은폐 위에 서는 것이 아
니라 진실과 건전한 양식 위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굳
건히 믿습니다.

강기훈씨 재판 항소심에서 기법장이 1심 재판부 판
결의 오류와 불명예를 썼고 엄정하게 진실을 가려냄으
로써, 정치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벼은 우리의 이 시
대에 건전한 양식과 진실을 살려내기 위한 거대한 싸
움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의 승리를 믿는 온 국민과 함께
재판의 진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1992년 3월 11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함 세 응 신부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식방을 위한 공동위 발족 기자회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권 대 정(강기훈의 어머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출두한다면
기훈이는 끝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말았다. 피를
말리는 긴 재판과정은 지켜보면서, 이성을 잃고 날뛰
는 검찰의 본무에도 불구하고 진위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고, 판사가 조금만 소신이 있다면 무죄판결을 내
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
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
했었가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한번도 기훈이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재판장과 줄곧 고개를 숙인 채 훑듯이 되어 있
아 있는 배석판사들의 얼굴만이 진실을 말해주는 듯,
분노로 들끓는 법정 안에서 나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흰 것을 검다고 계속 우기다 보면 검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신앙인도 안수집사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양심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릴 수 있는 것
이구나! 아니 예초부터 그런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지
..."

"신이 아닌 이상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 진리에 부
합하는지 알 수 없다"며 자신 없이 하던 노원목 판사
는 공신력을 세워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김형영씨
의 증언만을 받아들여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그렇게도 소중히 떠받들던 문서감정
의 권위자라던 김형영씨는 '국립'과 '과학'이라는 단어
앞에선 맥을 못추는 일반 국민들의 무비판적인 신망과
공권력과 사법부의 뜨겁고도 각별한 편에도 불구하고,
기훈이가 조사를 받던 바로 그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기훈이가 여섯달 동안 갇혀 있던 서울구치소에 간

혀 있는 몸이 되었으니 세상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이다. 진실은 덮으면 덮을수록 커진다던가? 그러나 그
것이 햇빛을 보게 될 날은 요원하게만 느껴지니 어찌
할 것인가? 국과수 비리사건을 축소하고, 회색시커리
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또
서두부터 영부새처럼 검찰의 항소문을 되뇌이는 고등
법원 판사의 모습을 대하면서 더 이상 사법부에 기대
를 걸지 않기로 했다. 공산주의의 심대신조 운운하면
서 공산주의자로 몰아부치려 하는 검찰과 인제가 검찰
의 변호인 역할을 해오는 사법부에 무엇을 더 바라겠
는가?

다만 벼은 석수, 쥐고기 소동 등으로 천사, 구토, 소
란 등이 끊이지 않는 안양교도소에 쫓겨나서 묶어 있는
자식이 안타까울 뿐이고 그렇기에 하무도 잠에 안
있을 수 없는 내 처지가 딱할 뿐이다. 오늘도 시민의
한 구원을 외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멸하고 종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용담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시 13:1-3)

법이 가려주지 않는다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
기에 그분의 정과 뜻을 참고 기다리 보려 한다. 비
록 그 기간이 10년이나 20년이라 해도...

만남

서준식

나의 '유서사건' 1년



비 온 후의 마석 모란공원을 지나는 바람은 싱그러웠다.
 아늑해 보이는 무덤 < 민주열사 김기철의 묘 >. 조촐한 묘
 비는 비바람을 견디며 호젓이 서 있었다. (벌써 1년이 지났
 구나...) 작년, 아주 말라버린 것만 같았던 눈물샘 밑바닥부
 터 이제 다시 조금씩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이 사람
 아, 왜 그런 식으로 가버렸는가!)

유서사건, 유서사건 하면서 나의 1년은 정신 없이 가버렸
 다. 한꺼번에 3.4년을 살아버린 만큼 수많은 분노와 회열,
 슬픔과 아픔이 마구 교차했던 1년. 1년을 그렇게 정신 없이
 살았건만 여전히 강기훈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그 부쌍한 김기철의 명예는 더럽혀진 채 그대로다. 내가 해
 놓은 일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의 17년 옥살이 후반부는 피를 말리고 정신을 갠아먹는
 회의와 고뇌의 연속이었다.

세상과 인간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나의 가
 슴에 깊이 침투해오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이 회의와 고
 뇌의 정체는 한마디로 내가 20대 초반에 크나큰 감동으로 학

습했고 나의 삶의 기둥이 되어온 사회과학 이론만을 가지고
 도대체 세상과 인간의 문제를 얼마만큼이나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었다. 독기감방에서 세상과 인간들로부터 단
 절된 나에게는 구체적인 실존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축적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
 이었다. 나는 구체적인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길을 갈망
 하고 있었다. 사람이 그리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는 내가 인권운동을 하게 되리라고
 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였다. 인권운동은 가치중립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매몰됨으로써 사회의 질적 문제(내지는 질
 적 도약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은폐하는 치명적 역기능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알갭게도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내가 17년의 옥살이를 마쳤을 때 세상은 잠에서 깃 깨어
 나 '장기수'도 '비전향'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청
 주 보안감호소 비전향 출옥 제1호로서, 많은 장기수들을 감
 옥에 두고 나온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에 대하여 "장
 기수! 비전향!"이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몸짓이
 나의 삶의 가닥을 인권운동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계기가 되
 어버린 것이다.

나는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으로서 장기수 문제
 에 "최대노력으로 파고 들고" 변혁운동의 지평을 바라보는
 인권운동의 가능성을 탐지해내고는 2년 만에 장기수문제로부
 터 "최대용기로 빠져나왔다."

구체적 사안을 대상으로 삼는 인권운동은 인간에 대한 구
 체적인 애착을 쌓아감으로써 어느 체제, 어느 사회도 '인간
 의 얼굴을 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한다.

이것이 인권운동의 영광이다. 한편 인권운동이 변혁운동의 안목 없이 눈앞의 구체적인 사안들 속에 매몰되어버릴 때 그것은 개량주의자들과 비슷한 오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권운동관(觀)을 품고 나는 '전민련'에 인권위원장으로 서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들어간 지 불과 두 달 만에 그 운명적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꽃다운 명지대 새내기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에 맞아 죽은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민련에 있어서 나의 직속 실무자 김기철의 분신, 그리고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나를 건잡을 수 없는 회오리 속으로 동맹이쳐버렸다. 이 '유서사건'이 내가 품었던 인권운동관에 비추어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인권운동으로서의 강기훈 무죄석방운동은 애초부터 강기훈 혼자를 살려내기 위한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무고한 한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국가권력, 위신을 세우기 위해 폭력으로써 거짓말을 끝까지 밀고 가는 국가권력에 대한 용징운동이다. 이 시대에 진실과 건전한 상식을 복권시킴으로써 항상 거짓의 힘에 짓눌려 살아야 하는 암흑의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이다.

나는 이 '유서사건'에 나 자신의 거의 모든 삶을 빼앗기고 허우적거리면서도 인권운동가로서는 이 같은 엄청난 인권유린사건의 한가운데 직접 당사자나 다름 없는 처지로서 설 수 있음을 분명 평생에 여러번 만나기 어려운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5월의 정국은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으로 이어지는 분신

행렬을 거쳐 '6공 최대의 위기' 양상을 띠어가고 있었다. 김기철이 분신한 것은 하필이면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에서 잇따른 분신사건 배후세력 수사방침이 마련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런 사실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서강대 박홍 총장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조종하는 선동세력"설,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증거 확보에 앞서 언론에 "배후세력에 의한 분신사살 조종"이라는 예단을 발표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분명히 분신행렬을 겨냥하여 운동권의 생명경시를 비난한 김지하의 현란한 시론(時論), 그리고 일부 김기철 가족들의 재야 운동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적개심 동등과 결합되어 결국 엄청난 '유서대필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김기철이 죽은 날, 세브란스병원에서 나는 20년 만에 반가운 동창생을 만났다. 신상규. 캄마른 대학생, 양식 있고 냉철한 대의원이었던 그가 배 나오고 눈매 매서운 강력부 검사가 되어 세브란스에 나타난 것은 김기철의 시체를 검시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우리는 '유서사건'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적'의 관계에 서게 되어버린 것이다. (상규, 자네는 '유서사건' 날조의 주범으로서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터이지만 끝내 자네는 '알지 못하고' 말 것이네. 자네와 필사적으로 공방을 벌인 나의 자네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자네들이 모국만을 바라보며 이국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내가 그 어머니의 땅에 와서 맨처음에 만나게 된 동포였기 때문이네...)

(신상규와 함께 본) 김기철의 시체는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했다. 가족들의 오열을 들으며 그 시체를 멍하니 바라보는 나의 뇌리에 김기철과 함께 했던 나날의 정경들이 낯은 무성

영화의 화면처럼 단속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김기설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슬하에서 자랐다. 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안 하려 하고 남에게 의지도 하지 않으려는 그의 독립독보의 꿈은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중학교 동창들은 "머리가 좋았다"고 그를 회상한다. 머리가 좋았지만 그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그 무렵부터 그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은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고를 자퇴하고 공고로,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그는 다시 공고를 자퇴하고 학력고사, 학력고사에는 합격했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한 그는 결국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한 후에 김기설은 성남시에서 노동운동과 청년운동을 했지만 가족들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별 관심도 없었다.

김기설이 전민련 활동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90년말이었다. 함께 전민련에 근무했던 강기훈은 김기설의 부탁으로 홍성은이라는 후배를 여자친구로서 소개해 준다. 홍성은과 김기설의 정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갔다. 김기설은 본인 직전 홍성은에게 전화를 했다.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이다.

전민련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나는 그와 함께 밀착하여 많은 일을 했다. 나의 눈에 너무나도 익은 그의 달필은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이 잘못된성이인 세상에서 산산히 부서져버린 그의 입지전적 꿈의 슬픈 잔해와도 같은 것이었다.

전국에서 65만 명이 시위에 참가한 5월 18일은 5월투쟁의 절정일 이룬 날이었다. 시청 앞을 향하다 이화여대 입구에서

저지당한 용장한 강경대 열사 장례행렬 한가운데서 석간신문을 펼친 강기훈은 자신이 죽은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고 경악했다.

명동성당에서의 '유서대필 공방'은 치열했다. 그 치열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했다. 사람들은 무식자도 아닌 김기설의 유서가 왜 대필되어야 하는지의 상식적인 물음도 잊은 채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필적만을 열심히 비교하곤 했다. 검찰이 유서가 김기설 필적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의로 쓰여진 연도를 밝혀지 않은 채 유서와 나란히 대비시켜 발표한 10년 전 김기설 필적의 선전효과는 가히 위력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5월투쟁의 열기는 급속도로 식었고, 나는 힘으로써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는 거대한 권력의 엄청난 횡포에 분노하면서 어느새 '유서대필 공방'의 최선봉에서 있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을, 속음과 깨침을 거듭해야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각처에서 속속 들어온 김기설 생전의 필적들, 유서와 한눈으로 보아도 똑같은 필적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환호성을 질렀으며, 그것들을 계속 강기훈이 명동성당에 앉아서 조작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검찰에 얼마나 많은 분개와 실망을 거듭했던가? 그리하여 사태의 심상치 않음이 점점 우리의 피부에 위기감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점차 꿈에서 깨어 '어른'이 되어갔다.

인론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꿈도 거듭거듭 깨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되어갔다.

검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며 강기훈을 단정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는 법조 출입 고참기자들을 명동성당에 드나드는

신출내기 사건기자들은 대적할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는 명동성당 마당에서 맥주캔을 기울이며 우리와 함께 분통을 터뜨린 젊은 기자들과의 우정을 나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깨어지기는 '한국의 양심' 명동성당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꿈도 마찬가지였다.

강기훈에 대한 공정수사를 요구하며 40여 일을 성당에서 비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갈 것을 종용하는 성당의 압력은 꿈을 깨지 못했던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이었다. 성당을 겹겹이 포위하는 경찰병력 때문에 예배 참석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재정적 손실을 당신들이 어떻게 배상하겠느냐. 힘을 사용해서라도 끌어내겠다"던 평신도 대표들과 더 이상 승강이를 벌일 기력도 우리에게겐 없었다.

'자진출두'는 실은 자진이 아니었다. 명동성당은 이미 '민주화 운동의 메카'는 아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로서 강기훈에 대한 검찰조사는 지지부진했다.

'업무일지 문제'는 이렇다. 사건 초기, 유서가 김기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보겠다는 신상규 검사의 청을 받아 내가 꽤히 건네준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는 주로 김기철 글씨로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는 다른 두 사람의 활동가의 글씨도 섞여 있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는 놀랍게도 이 업무일지의 필적을 몽둥그려 유서 필적과 같다고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업무일지를 강기훈이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업무일지에 자신의 필적으로 기입했던 다른 두 활동가들도 강기훈과 공범이려야 옳다.

'업무일지 문제'는 검찰의 치명적인 자충수였다. 검찰은 이 시점에서 적어도 '강기훈이' 범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 검찰은 이미 강기훈을 범인으로서 찍어버렸으며 그것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버린 상태였다. 공권력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대로 믿어볼 일 수밖에 없었으며 범인은 하늘이 무너져도 강기훈이라야 했던 것이다. 설령 김기철이 소생하여 유서는 자신이 썼다고 증언해도 범인은 강기훈이라야 했던 것이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강기훈에 대한 공소장에는 "그가 1991. 4. 27 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서대필 공방의 최선봉'은 강기훈이 일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을 고스란히 성동구치소에 격리되어 있었다. 나에게 적용된 것은 보안관찰법이었다.

사회안전법이 그 목숨을 다하면서 떨기놓고 간 보안관찰법은 나의 '전과' 때문에 나에게 사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경찰에 서면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전민련에서 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부당한 요구를 그 시점까지 2년 반 동안 거부했었던 것이다. 나를 잡아들일 명분은 보안관찰법밖에 없었다. 나는 '항상 체포 가능'의 꼬리표를 달고 인권운동을 해온 셈이다.

그러나 추한 것은 덮어두는 게 좋다는 이치는 '저쪽'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남발함으로써 이 법을 악법이라는 빗발치는 지탄에 드러내기보다 그 존재만으로 '전과자'들이 몸조심하여 "알아서 기는" 편이 훨씬 바

람직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이치 때문에 나는 "알아서 기지" 않았다. 나의 이 방자함이 목과될 수 없다면 나는 다시 감옥으로 가고 대신 보안관찰법은 세상에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별로 크게 나쁘진 않다. 또 나의 방자함이 목과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는 계속된다. 이것도 그런 대로 괜찮다. 나는 이렇듯 나의 묶음 담보로 2년 반 동안 곡예를 해온 셈인 것이다.

'유서대필 공방'은 이 균형상태를 드디어 깬다. 유서사건은 그만큼 검찰의 생사를 건 중요한 사건이었다.

격리생활은 답답했다. 아내와 함께, 딸들과 함께 살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서사건'은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다. 호송차에 실려 증인으로 나간 '유서사건' 법정엔 썰렁했다. 거대한 대법정에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방청객들... 거기서 강기훈은 거만한 재판관과 마주보며 조그맣게 앉아 있었다. 그 초라한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초라한 진실과 양심의 모습에 다름이 아니었다.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나에게는 다만 '유서사건'의 선고공판을 볼 기회만이 남겨져 있었다. 재판장은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판결요지를 읽어나갔다. 나는 그 공판에서 이 시대 인간들의 소심한 잔인함 이외의 아무 것도 감지할 수 없었다.

법조 출입기자들이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명동성당에 농성하는 강기훈을 그렇게도 범인으로 몰아대던 바로 그 기자들이...

신부님. 유서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날짜가 어느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제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400인 선언」을 발표한 후 법원에 전달하고 오는 길에서 문득 거리의 봄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니 개나리가 언제 피고 어느새 쫓겨나도 모르고 "유서사건, 유서사건" 하면서 저의 이 봄은 가버린 셈입니다.

"당신 어쩌려구 그래요? 유서사건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유서사건이 끝나면 죽어버릴 거예요?"

저의 건강을 걱정하는 나머지 아내는 두려운 낯으로 가끔 이런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한창 기승을 떨던 1월달부터, 정신없이 벌여온 그것은 '운동'이라기보다 분명 '강행군'이었습니다.

신부님.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 정당 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저의 순진한 구상은, "강기훈 개인을 위해 뭐 이런 공대위까지..." 하며 난색을 나타내는 정당,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확증도 없지 않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민단체 때문에 첫판부터 무너져버렸습니다.

실무팀을 구성하는 어려움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판에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독실거리는 데도 이 몇 안 되는 실무팀의 빈약한 어깨에 '거대한 거짓과의 싸움'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준식, 인권운동을 하는 비인간!"이라는 우스개가 떠돌 정도로 저는 이들에게 가혹한 강행군을 요구했습니다.

어지러운 총선거판에 파묻혀 우리가 정성들여 준비했던 공정재판촉구대회가 '대회' 아닌, 참으로 초라한 '소회'가 되

어버려 신문에 단 한 줄도 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무려 5000장이나 발송한 강기훈 후원회원 모집 왕복엽서에 고작 100장도 안 되는 회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신부님, 저는 정말 터지려는 울음을 간신히 간신히 참았습니다. 선거판에 목걸이는 천문학적 수치의 돈과 사람, 그 만분의 일이라도 이 '거대한 거짓과의 싸움'에 쓸 수 있다면! 정치를 냉소하지는 않으렵니다. 하지만 정치를 냉소하고 싶은 유혹과의 싸움이 그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그 과정에서 입은 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해주시시오.

거짓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검사와 노골적으로 편파적 재판을 하는 판사를 저주하면서, 집회에서의 인원동원에 피를 말리면서 1백만원이나 되는 적자에 쪼들거리면서, 혹은 잘 모가지지 않는 서명에 발 동동거리면서...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런 작품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면 강기훈에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신부님, 싸움이라는 것, 어차피 쌍방이 상처를 입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 '거대한 거짓과의 싸움'의 노고를 치하해줄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입은 저의, 그리고 몇 사람의 젊은이들의 깊은 상처를 함께 아파해주시다면 우리는 이번 선고공판 이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을 이 험한 길을 다시 힘을 내어 기쁘게 행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300석이나 되는 커다란 대법정에 불과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방청객, 거기서 오만한 법관 앞에 선 초라한 강기훈의 모습... 저의 뇌리에는 지금 1심 법정의 그 기막힌 광경이 떠오릅니다. 그 법정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은 실은 강기훈이 아니라 이 시대의 초라한 진실이었는데도 모른

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 악질'로 명성을 떨치는 용감무쌍한 항소심 재판장은 아마, 1심 재판장이 강기훈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판결요지를 읽어나간 것과 달리, 고개 뺏뺏이 들고 아무렇지 않게 강기훈에게, 아니 진실에게 유죄선고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검사나 판사들이 결코 갖지 못할 희망이 남을 것입니다. 강기훈이 1심 최후진술에서 말했듯이 "진실은 언제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셋별처럼 초롱 초롱 빛나"고 있다는 희망은 눌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신부님, 봄은 갔어도 저의 남들의 봄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씨웠다"는 뿌듯함을 안고 잠시 걸음을 멈춘 김에, 확실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 저의 세 살짜리 딸을 데리고 서울대공원이나 한번 가보렵니다. 그리고 곧 다시 험한 길의 강행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눌린 자만의 아름다운 희망을 깊이 간직하면서...

(어느 신부에게 보낸 편지)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터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비리 사건에 걸여본 우리의 '속음'은 다시 '깨침'으로 변하고 나는데 다시 한발짝 '어른'이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뇌물 허위감정을 해온 감정인들의 이 엄청난 사건은, "강기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유죄선고가 나와 한다"는 지상과제만 없었더라면 "뇌물을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 따위 비상식적인 결론으로는 분명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항소심 재판장은 "고개 뺏뺏이 들고 아무렇지 않게 강기훈에게, 아니 진실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나는 이 결말을 충분히 예견할 만큼은 이 1년 동안에 '어른'이 되어 있었다.

비온 후의 마석 모란공원을 지나는 바람은 싱그러웠다.
"기설아.

나는 믿네. 자네가 뿌린 씨 이렇듯 오늘도 자네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움트고 있음을. 그 작은 그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릴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끝내는 가지 무성한 거목이 될 것이네. 그리고 훗날 따가운 퇴약별 아래 딱딱한 흙먼지길을 가다 지친 사람들이 자네의 그 무성한 가지 그늘에 편안히 앉아 쉬며 옛이야기를 할 걸세. '그 옛날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유서사건>이라는 회한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폭력정권 타도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사른 젊은이를 유서도 못 쓰는 무식쟁이로 모욕하고도 태연했단다' 라고."

"고이 잠자게. 강기훈이 무죄선고를 받는 날, 그러니까 더럽혀진 자네 명예가 회복되는 날을 위해 오늘 여기 자네의 무덤 앞에 선 우리 열심히 일하겠네. 열심히 살겠다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서준식 / 전 전민련 인권위원장)

이 나라의 인권 자화상, 강기훈

서준식

(강기훈 무죄선방을 위한 공농대체위원회 집행위원장)

... 피고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로할 범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유서사건' 발생부터 재판 종결까지 검찰이 한결같이 제시했던 강기훈의 모습이다. 검찰이 그려낸 이 강기훈 상(像)에는 분명 살벌한 평가가 어려 있다. 이 평가는 진정 강기훈의 것인가? 아니면 검찰 자신의 것인가? 강기훈, 그는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 나라 감옥 중의 감옥인 대전교도소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1994년 8월의 형기 만료를 기다리고 있는가.

4대에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의 말아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났던 날, 김기설 유서를 바라보면서 기천이와 은옥은 몹시 당혹스러워했다. 이렇게 큼직한 글씨가 형(오빠)글씨라니..... 강기훈과 20년 이상을 함께 자라온 이 두 동생은, 강기훈이 이 유서처럼 큼지막한 글씨로 문장을 쓰는 것을 여지껏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재판이 다 끝나고 '강기훈'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다. 마치 과거의 사진첩을 뒤적이듯이 '유서사건' 자료 파일을 살피다가, 김기설의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자료를 꺼내어 나란히 놓고 본다. 달필로 기침없이 똑똑 나가는 김기설의 큼직한 글씨와, 깨알같이 촘촘히 박힌 강기훈의 '쫄쫄한' 글씨..... 문득 그 날의 당혹스러운 기천이와 은옥의 표정이 떠오르고, 목소리 하나 크게 못내는 그 순해 빠진 가족의 내력이 궁금해진다.

강기훈 집안은 4대에 내려오는 기독교 가

강기훈재판 1심법정은 열렸다.
2백 석의 방청석에는 2십 명 가량의 방청인만이
앉아 있었으며, 거기에 이 시대의 진실이 초라한 모습으로
국가권력과 마주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고개를
숙인 건 사법부였다.

정이다.
 올해 94세인 강기훈 할아버지는 40대 초반에 장로가 된 후 지금까지 50년 동안 전북 삼례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전주 기전여학교 시절 31운동에 참가하여 옥고까지 치른 할머니는 젊어서 귀암으로 돌아가셨다.

강기훈의 아버지 형제들은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등으로 평범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두 50여 명이나 되는 가족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교회와 튼튼하게 맺어진 소심하고 유순한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 가족들 모두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왔음을 강기훈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강기훈 아버지인 강태평 씨는 올해 65세. 나이 40을 넘어 겨우 교육대 졸업장을 딴 국민학교 선생이다. 21살부터 43년에 계속 교원생활을 해왔지만, 내년 2월에 정년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용통성 없' 평교사이다.

어머니 권태평 씨는 전북 함열에서 태어났다. 친정 어머니의 영향으로 **독실한 성결교인으로 성장한 권태평**씨는 어린 시절을 '유성기까지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친정 아버지가 침을 얻어 나가버린 후, **고달픈**

처녀 시절을 보내게 된다. 군산으로 이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병원에서 간호 보조

원으로 일하면서 고학을 해야 했고, 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직장생활을 했지만, 28살에 "그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강태열 씨와 결혼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강기훈이 태어난 것은 1964년. 세번이나 유산한 끝에 네번째로 어렵게 어렵게 얻은 장남이었다. 그런 만큼 한마디로 "정성 들여서 길렀다"고 한다.

...(기훈이는) 5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 유치부, 초동부, 중고동부, 대학부 등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여리고 정 많은 아이입니다. ... 아버지가 38세 돼서야 겨우 얻은 맏아들이기에 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길렀고, 특히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하여 공들인 귀한 자식이기도 합니다. ... 하늘을 향해 한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식으로 기르려 노력했고 또 완벽하지는 못하나마 저의 꿈에 부합된 자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제 자식은 지금까지 그런 술수를 배워 오지 않았고... 신경증이 가늘다 가는 계집애같은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위인



무장한 공권력에 맨 몸으로 맞선 의연한 진실

전을 읽고 처칠이나 카네기보다는 강계구 소령이 진짜 위인이라고 하던 아이입니다. 자신이 죽었으면 죽이지 남의 죽음을.....

- 1심 재판부에 낸 강기훈 어머니 편지에서

그러기에 권태평 씨는, "죽음을 선포하는 어둠의 세력" 운운했던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이 명동성당에서의 '유서 대필공방'이 한창이었을 무렵, 당시 모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운동권의 '생명경시'를 지칭하면서 내뱉었던, 운동권 학생들은 어려서 부모의 애

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자랐다는 취지의 망언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았다.

강기훈은 무학국교, 성수중학교를 거쳐 세종중학교로 진학했다. 강기훈에게는 하나의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유악이었다. 원래 강기훈 아버지의 꿈은 지휘자가 되는 것이었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정환경은 음악의 길로 나아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강기훈의 운명이기도 했다.

세종고에서 현악부에 들어가 바이올린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강기훈은 음대 작곡과를 지망했고, 한때 레슨을 받았지만 '피아노가 딸려서' 음대행을 포기해야 했다. 그는 두번째로 하고 싶었던 화학을 전공한 후에도 바이올린과 혼자서 익힌 클래식 기타 솜씨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강기훈에게는 두 사람의 동생이 있다. 강기훈보다 더 '계집애 같은' 남동생 기훈은 지금 포항공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 어머니를 닮아서 활발한 편인 누이 은옥은 이화여대에서 사법시험을 노리는 법학도이다.

공부만 하는 두 동생도 어찌 보면 형 또는 오빠 때문에 피해를 볼 때도 있긴 만, 한 번도 원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무시 따르며 존경했었고 저의 집은 언제나 화기에 애했습니다.

- 위 편지 중에서

역사의 아들로 당당히 큰 젊은이

고등학교 2학년 말에야 음악에서 화학으로 방향을 튼 강기훈은 단국대 화학과에 입학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의 기간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의 단절이요, 좌절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고. 집안에서 '비쓰 마이플'로 통하던 어머니도 감을 제대로 못잡았을 만큼 '운동권'에 의 집근이 서서히 이루어졌다. 그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학년 무렵만 해도, 성적은 양호했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다.

그러나 3학년 말(1984)에 학원자주화 추진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강기훈의 변신은 비약적인 바가 있었다. 1984년 11월에 김시범 위반으로 구류 10일. 1985년 2월, 민주화추진위 위원장 선임, 총학생회 준비위에서 활동하다가 총학 발족 후에는 사회부장. 1985년 8월에도 김시범으로 구류 10일. 이 사이에 그는 단국대 삼민주위 위원장이 되어, 후배들에게 단국대 학생운동을 개척한 '전설적 인물'로 알려지게 된다. 1985년 11월에는 가락동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에 참가하여 징역 2년형을 받고 1987년 7월에 출옥하게 되는데, 그의 학생운동 경력은 여기서 끝난다. 그는 출옥 후 복학하지 않았다. "또 학생운동의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 싫었다"는 게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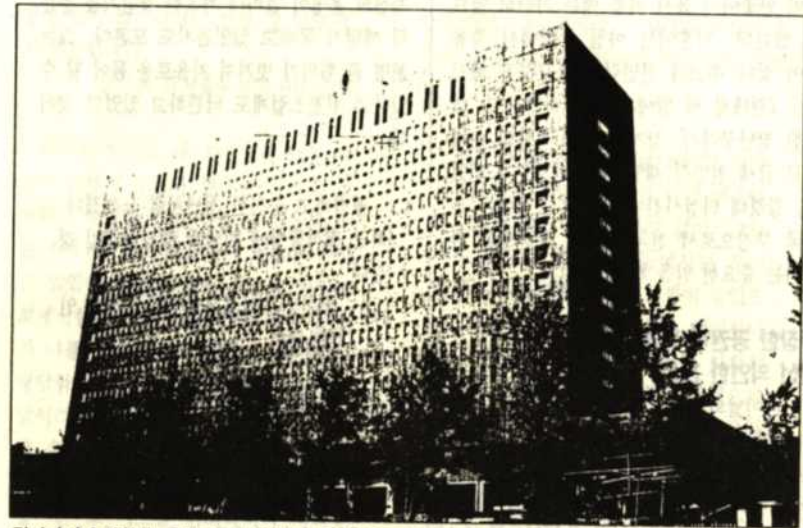
어머니 권태평 씨가 처음으로 아들이 '운동권'임을 알게 된 것은 첫번째 구류 때였다. "하루는 기훈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열심히 찾아 다니는데, 교회에서 함께 야학 선생을 하는 친구가 경찰서로 가보라고 하

지 않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남대문 경찰서에 갔더니 거기 기훈이가 있더라"고.

성적이 자꾸만 떨어져 학사경고가 나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4학년 1학기, 권태평 씨는 아들에게 말했다. 공부를 안하려면 군대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등록금을 안주겠다. 아들은 공부를 하겠노라 했다. 그런데 수강신청 마감 날 학교에 확인해 보니 수강신청이 안되어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야단쳤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에 가보니 민주화 추진위원장인 강기훈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기간이 3~4개월을 넘으면서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해가 되든 말든 아들이 집으로 가져오는 유인물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말한다. "기훈이가 나의 행복을 받아낸 것"이라고.

민정당연수원 농성사건 때 어머니의 눈에 강기훈은 '너무나도 당당했다'. 그러나 강기훈은 어머니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제 어머니는 면회를 위해 의정부교도소, 성동구치소, 영등포교도소에 있는



정의의 수호지인가, 정권의 하수인인가. 강기훈은 재판정에서 끌려 나오며 외쳤다.
"관둬, 거지같은 X들이! 그때워 재판은 집어 치워!"

동안 수많은 눈물을 뿌리셨습니다. 큰 아들로써 의연함을 잃지 않기 위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처음 눈물 보인 것은...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낫설고 물설은 고장에 아들을 면회하러 내려오신 그날 마산교도소 접견장에서였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고,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 발을 디밀었다는 고립감보다 지른 더 슬프게 했던 것은, 험스한 어머니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 강기훈 1심 최후진술에서

마산교도소에서 추옥한 강기훈이 학교를 그만두고 재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무렵, 어머니는 질 것이 뻔한 시비를 또 걸어 봤다. 그런데 형 대신 이번에는 공부벌레 동생 기천이가 나섰다. "어머니, 지금 사회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아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아요?" "그, 그래." "그 일을 형 같은 사람이 해야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강기훈은 민중의 당, 전국 노운협을 거쳐 1989년 5월에 전민련에 들어갔다. "제가 위

장이 안좋아서 몹시 아플 때는 가만히 없으려 있는데, 기훈이는 아침 부엌에서 죽을 쑤어 갖다 주고야 진민런에 출근하곤 했지요." (권태평 씨 앞에서) 암전하면서도 '내 단한 장난꾸러기' 강기훈은 그 특유의 손재주로 급세 진민런 제일 가는 타자수가 되었고, 강경대 타살사건이 일어날 즈음에는 총무국 부장으로서 전국 컴퓨터 통신망을 관장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무장한 공권력에 맨 몸으로 맞선 의연한 진실

어머니날의 하루 전 날인 5월 7일, 애인인 이영미를 만나고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꽃과 선물을 사갔고 들어온 강기훈은 밤 늦게까지 동생들과 이야기 하다 잤다. 다음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또 하나의 분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강기훈은 서둘러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한번도 통화해본 적이 없었던 이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울먹이면서 밥도 안먹고 집을 나갔다." (이영미의 모 신문 인터뷰에서)

5월 13일에 강기훈의 후배이자 분신한 김기철의 여자친구 홍성은이 연행되고, 5월 16일에는 강기훈 집을 검찰이 수색을 했다. 강기훈은 영문 모르는 채 연세대학교에 피신했다. 5월 18일, 서울 중심부로 진출하려는 장대한 강경대열사 강령행렬 한가운데서 그는 석간신문을 펼쳐 보고 기절초풍했다. '유서대필공방' 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명동성당에서 그는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모른다. 또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모른다. 그는 분명 곧 혐의가 벗겨져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고 천진스럽게도 낙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범하고 순진한 청년처럼 느껴졌다. 최근 필적공방에 시달려 탈진상태인 것 같다.

- 경감실 수석보좌신부의 모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김수환 추기경에게 편지를 썼다.

명백하게 저는 유서를 대필하지도 자살을 방조하지도 않았으며……수시당국이 그간에 상상해 왔던 하나의 가상을 포기하고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박한 '인간들에 대한 믿음'에……

명동성당은 그러나 이제 '민주화운동의 메카'가 아니었다. 강기훈은 자진출두하던 날, 자진출두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지쳐서 파리해진 어머니 얼굴을 보고 그때까지 참고 참던 눈물을 쏟았다.

잠시 후에 검찰청으로 떠날 지금의 제 심경은 뒤흔들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 드는 공권력에 맞서 제 양심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강기훈 자진출두성명 6월 24일

하지만 앞으로 내 자신에게 닥칠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엄청난 무게로 들썩워진 누명을 과연 벗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내가 지금까지 최소한 가지고 있었던 양심과 삶의 태도를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나를 울게 만들어 버렸다. 의연함과 당당함으로 저들의 사악함을 폭로하고 맞서려 했는데… 이러한 심약함은 후에 수사과정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기는 했지만…버스를 타고 검찰청을 향할 때, 그 버스를 따라다니며 비디오 카메라를 둘러대는 방송사 기자들을 무덤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고나니 내가 유명해졌더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 날 수가 없었고, 내게 주어진 운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다. …이제서야 나의 위치를 깨달았다고나 할까. 검찰청 입구에서 수갑을 찬 채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난 나는 "어쩌면 오랫동안 밟지 못할 외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런 비감함은 아마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 이영미에게 보낸 편지, 7월 24일

정의와 진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빛나리니 강기훈재판 1심법정은 썰렁했다. 이백석의 방청석에는 이십 명 가량의 방청인만이

앉아 있었으며, 거기에 이 시대의 진실이 초라한 모습으로 국가권력과 마주앉아 있었다.

저는 검찰에 출두할 당시에 그 어떤 부분보다도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그 허황된 말들이 무리 없이 "그럴 수도 있구나"하고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으며, 지금까지 그 때의 느낌은 여전합니다……저는 이 사건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확실히 척결해 내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서대필사건으로, 어이없는 비상식의 상식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의 대가와 땀과 눈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들이 몹쓸 죄를 지은 죄인으로 단정되어, 세상의 온갖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다니신 어머니의 5개월의 면회길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인간의 눈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만을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나마의 고통이 지와 제 가족에겐 너무나 큰 것이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셋별처럼 초롱초롱 빛납니다. 반대로
가식과 허위는 그 명이 짧아, 감추어진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마
련입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격다짐 받고, 그것이 사실인 양 광범
히 유포되어... 만일 사법부에서마저 이
를 인정한다는 끔찍한 가정은 모든 것
에 대한 절망을 의미할 뿐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 한사람의 불행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의
기간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의 단절이요, 좌절의 시간일 뿐입
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다시 가져옵니다.

- 이상 모두 1심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부는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했
다. '고개 숙인 판사', 판결요지를 읽어나가
는 재판부는 강기훈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
다. 강기훈이 이영미에게 썼듯이, 그 장면
은 "한 인간의 나여림과 잔악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마치 영화와 같은 장면"이었다.
유죄판결 직후 강기훈의 호소책임을 맡은
한 교도관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처연해진 눈빛을 그에게 보내며 울
었다(항소이유서에서). 구치소로 돌아와
"몇 시간을 반 정신병자처럼 멍하니 있다
가, 밤엔 남몰래 숨죽여 오열하며....."(항
소이유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뇌물사건이 터져 강기훈 필적을 감
정했던 장본인인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구

속되었는 데도, 1심보다 더 고답적인 논리
로 고개 뺏뺏이 들고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
고했다. 그것은 무장에 의하여 담보된 거대
한 국가권력이 강기훈을 짓누르는 '불가항
력'이었다.

검사가 강기훈에게 물었다고 한다. "너,
공산주의자 10대 신조가 뭔지 알아?" "혹시
살부회(殺父會)라고 들어봤어?" 모른다는
강기훈의 대답에 검사는 의기양양 설명을
한다. 10대 신조 중에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우
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시작은 일본 유학
생들이었고, 이들 중의 다수는 지주의 자식
이었다. 인민의 적인 자기의 아버지를 스스
로 죽일 수 없기에, 이들은 서로 아버지를
죽여 주는 모임(살부회)을 만들었다는 것이
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
러나 검사들은 "결국 목적을 위해서는 아
비지마저 죽여버리는 것이 나와 같은 공산주
의자들이다"고 하면서 강기훈에 대한 뒤달
을 시작하였다. 검사는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끊임없이
들먹였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판기는 강기훈의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것인가? 강기훈은 누구인가? 그는 이 '유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변했으며, 지금 감옥
중의 감옥 대전교도소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Prisoner of Conscience Kang Ki-hun



January 1993
AI Index: ASA 25/04/93
Distr: SC/CO/GR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REET, LONDON WC1X 8DJ, UNITED KINGDOM

SOUTH KOREA Prisoner of Conscience Kang Ki-hu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release of Kang Ki-hun, a 27-year-old political activist who is serving a three-year prison term on charges of aiding and abetting the protest suicide of a colleague.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Kang Ki-hun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rrested on account of his peaceful political activities and wrongly convicted after an unfair trial which failed to prove him guilty.

Background Information

Kang Ki-hun's arrest and conviction should be seen in the context of widespread anti-government protests in May 1991. On 26 April 1991 student Kang Kyung-dae was beaten to death by riot policemen during an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in Seoul. This incident sparked off weeks of mass protests across the country. Initially critical of riot police practices, the demonstrations developed into a more general anti-government movement. Nine young people publicly committed self-immolation, often by fire, as an extreme form of protest. The funerals that students and dissident groups organised for them led to further mass demonstrations. One of those who killed himself as a political gesture was 24-year-old Kim Ki-sol.

The dissident organization *Chonminnyon*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of Korea) was one of the groups at the centre of the protests and street demonstrations. *Chonminnyon* was established in 1989 and since then many of its leaders have been arrested and imprisoned for their alleged anti-government views and activities. Kang Ki-hun and Kim Ki-sol were both staff members of *Chonminnyon*.

The arrest of Kang Ki-hun and the charges against him

On 8 May 1991 Kim Ki-sol, director of the Social Department of *Chonminnyon*, set himself on fire and jumped to his death from the rooftop of a building at Sogang

University, Seoul. In a suicide note he said that his death was to protest at the police killing of student Kang Kyung-dae and he called for democratic reforms.

Immediately after Kim Ki-sol's death the prosecution authorities announced that someone had instigated and helped him to commit suicide. This echoed a statement by the Prosecutor General that someone had masterminded the series of protest suicides.

On 18 May, the day of the second funeral march for student Kang Kyung-dae, the prosecution announced that a certain "K" who worked for *Chonminnyon* was responsible for writing Kim Ki-sol's suicide note. In late May the police obtained a warrant for the arrest of Kang Ki-hun. Kang took refuge in Myongdong Cathedral with a number of other dissident leaders who were wanted for organizing the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in May. On 24 June he gave himself up to the police declaring "As I am innocent there is no choice for me but to turn myself in honourably". Dissidents and human rights groups claimed that the authorities had fabricated a case against Kang Ki-hun in order to damage the moral standing of *Chonminnyon* and the dissident movement at a time of serious social unrest. The warrants of arrest against Kang Ki-hun and dissident leaders had indeed the effect of halting the street demonstrations.

Kang Ki-hun was charged under the Criminal Code with aiding and abetting the suicide of Kim Ki-sol. The basis for the indictment was an alleged similarity between Kang Ki-hun's handwriting and that in Kim Ki-sol's suicide note. There was no evidence of the time or place when Kang Ki-hun allegedly wrote the suicide note, nor of any actions whereby Kang Ki-hun incited or helped Kim Ki-sol to commit suicide. Apparently Kang Ki-hun had an alibi for the days preceding Kim Ki-sol's death to prove that he was not involved in preparations for the suicide. Kang Ki-hun was also charg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with belonging to an "anti-state" group, *Hyoknomaeng*, whose members were rounded up and tried in mid-1990. The charges were based on the fact that police found at Kang Ki-hun's home a copy of the minutes of a meeting of *Hyoknomaeng*. The minutes did not record Kang Ki-hun's presence at the meeting in question and it is believed that the minutes had been given to him by a friend. Kang Ki-hun has denied being a member of the organisation.

On 20 December 1991 a Seoul district criminal court found Kang Ki-hun guilty and sentenced him to three years' imprisonment and 18 months' suspension of civil rights.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upheld by the High Court on 20 April 1992 and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on 24 July 1992. The trial focused on the charges of aiding and abetting Kim Ki-sol's suicide and it is unclear if the charg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membership of an "anti-state" organisation were substantiated.

An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evidence used to convict Kang Ki-hun was inconclusive and unconvincing. It does not believe that Kang Ki-hun can be held responsible for writing Kim Ki-sol's suicide note. Even if the evidence did indicate that he had written the suicide note, this in itself does not prove that he aided and abetted the suicide.

The court based its judgment on an analysis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NISI) which concluded that Kang Ki-hun had written Kim Ki-sol's suicide note. The NISI analysis was commissioned by the prosecution and wa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Kim Hyung-yong, Chief of the Document Analysis Department.

The defence lawyers challenged the NISI analysis and the district criminal court accepted that it was defective in some respects. For example, *Chonminnyon* staff members said that several people had made entries in an office diary and that those made by Kim Ki-sol concerned appointments and meetings only he would have known about. NISI's conclusion, however, was that all the entries in the diary were by the same person, the same who had written the suicide note, and that the diary had been fabricate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fact, accepted that there were several handwritings in the diary and that one of them was similar to that in the suicide note.

The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had commissioned an independent handwriting analysis by a Japanese graphology expert, Yoshio Onishi, and this was presented in court on behalf of the defence. This analysis concluded that Kim Ki-sol had written his own suicide note and thus supported the defence claim that Kang Ki-hun was innocent. The analysis and a description of the methodology used were presented in court but were challenged by the prosecution on the grounds that the analysis contained some errors and because it had been prepared by a foreigner who was not fluent in the Korean language.

The defence lawyers asked Kim Hyung-yong what methodology had been used to conduct his analysis. He apparently replied that he had used his own judgement and experience, refusing to give details of how he had reached the conclusions presented in the analysis. This absence of any description of methodology made it difficult for the defence to contest the analysis results.

The defence lawyers submitted a large number of documents but the court insisted that they should have them analysed by handwriting experts. The lawyers declined to do so as they felt that none of the private or government experts in South Korea could be expected to give an impartial opinion. To underline their concern, as Kang Ki-hun's

trial was progressing, Kim Hyun-yong was arrested on charges of accepting a bribe in return for endorsing a false authentication of a document in an unrelated case. The lawyers called on the court to compare the various handwritings themselves and use its common sense in reaching a judgement. In the end the court simply accepted the conclusion of the NISI analysis.

Other evidence was provided by Kim Ki-sol's girlfriend, but this too was inconclusive. Shortly after Kim Ki-sol's death, she disappeared and it was later learned that she had been questioned for two days by the prosecution. During that time she allegedly said that Kang Ki-hun had forged Kim Ki-sol's handwriting in her diary. She withdrew her testimony during the trial.

The defence lawyers criticized the prosecution authorities for concealing a document written by Kim Ki-sol when he was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and which showed both his printed and his cursive styles of writing. This document was also important because it came from a source that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could not dismiss as untrustworthy, as they did with other documents submitted by people who had connections with the dissident movement.

The judges themselves appear to have had doubts about Kang Ki-hun's guilt. In early December 1991 newspapers reported that the court had told journalists that they would have to approach the case to find "relative" truth rather than the "whole" truth because neither side had conclusive evidence. When delivering his verdict at the first trial, the presiding judge is reported to have said that "we do not believe that our judgement i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and absolute truth".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is conclusion goes against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 of justice that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should be proved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or acquitted. Lawyers and human rights groups were astounded that Kang Ki-hun could have been convicted in such circumstances. Some lawyers are reported to have said they had never witnessed such a biased trial. Many people have comment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court's verdict was likely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authorities were not prepared to accep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a verdict of innocence.

Many respected civil leaders in South Korea als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Kang Ki-hun was innocent. Cardinal Kim Sou-hwan was one of the prominent people who sent an appeal to the High Court expressing concern that the lower court had ignored the principle that a defendant should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Kang Ki-hun

Kang Ki-hun comes from a Christian family and is a former student of chemistry at Dongguk University in Seoul. He is currently held in Taejon prison and his three-year prison sentence will expire in June 1994. His sentence has now been finalized but lawyers are seeking ways to reopen the case.

In a submission to the High Court Kang Ki-hun insisted that he was innocent. He said:

"The court would not sentence guilty someone who is innocent, would it? The court would not accept the sham handwriting appraisal of the NISI before all the evidence pointing to the clear truth and fact, would it? These were the thoughts that ran through my mind as I moved to and from the detention centre in the mountains of Poil-dong and the courthouses in Socho-dong for the first trial. I wanted to convince myself again and again that the trial would lead to a rational conclusion. However, the court accepted without altering one word the argument of the prosecution which was based on evil distortion of the facts and outlandish assertions. The moment that I heard the decision of the judge I felt despair falling on me with the weight of the sky caving in all around me. This land became a land struck with calamity, full of falsehood and deceit with no glimpse of truth."

찾아보기

• /표시 뒤의 I, II, III은 총자료
집 권수를 표시한 것임.

KNCC 인권위 공문 접수 수사보고 / I 236

Prisoner of Conscience Kang Ki-hun(amnesty international, 1993.1.) /III 931

감정의뢰(5월 21일) / I 207

(5월 15일) / I 126

(5월 21일) / I 207

(5월 23일) / I 235

(5월 27일) / I 288

(5월 28일) / I 309

(수첩 절취선 일치여부) / I 243

(수첩절취선 감정에 대한 보충질의) / I 288

(담배꽂초) / I 93

필적 감정의뢰(강력23110-016452) / I 467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5월 15일 / I 126

5월 17일 / I 165

5월 25일 / I 248

5월 29일 / I 312

5월 31일 / I 350

7월 4일 / I 520

감정의뢰 회보 접수보고(혈액 감정) / I 208

감정의뢰 회보(담배 꽂초) / I 210

감정의뢰, 감정회보 등 관련 비교내역표 / 변호인 / II 589

감정의뢰서(5월 10일) / I 75

감정회보 범피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 I 202

장기훈 거짓말탐지기 실시 동의 여부 / I 551

구속영장 / I 284

구속통지서 / I 432

모두진술 / II 75

피고인 보충신문 / II 621

범피경력조회서 / I 124

변호인 접견 / I 468

상고이유서 / II 734
 상고장(92.4.21.) / II 727
 압수수색영장 / I 15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I 154
 압수조서 수사보고 / I 109
 자살방조사건 조사결과(검찰, 91.7) / I 567
 자술서 / I 433
 진술서 / I 470
 진술서 / I 519
 최후진술서 1. / II 289
 최후진술서 2. / II 624
 출국금지요청서 / I 186
 출두 소환장 전달 수사보고 / I 200
 피의자 신문조사 / I 453
 피의자 신문조사 제2회 / I 462
 피의자 신문조사 제3회 / I 476
 피의자 신문조사 제4회 / I 484
 피의자 신문조사 제5회 / I 500
 피의자 신문조사, 제6회 / I 545
 피의자 신문조사, 제7회 / I 556
 학적 등 입수보고 수사보고 / I 116
 항소이유서 / II 365
 항소장 / II 345
 강기훈이 써보인 김기설의 유서내용 / I 293
 강효남 증인신문조서 / II 158
 검증조서(김형영의 뇌물수수사건 기록, 92.3.27.) / II 445
 검찰 공소장(자살방조) / II 27
 공소장(국가보안법) / II 33
 논고문(1심) / II 296
 논고문(2심) / II 627
 논고문(추가 의견서 제출, 92.4.9.) / II 695
 변호인 신문에 대한 이의신청 / II 587
 변호인 제출 필적감정 신청 의견 / II 594
 변호인 증거에 대한 의견 / II 182
 자살방조사건 조사결과(91.7) / I 567
 참고자료 제출 / II 72
 참고자료 제출 / II 130
 참고자료(김형영 감정 공정성 검토결과 의견서) / 검사 / II 600
 참고자료(이창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제출 / II 595
 항소이유서(92.2.18.) / II 355
 항소장 / II 345

고상만 증인신문조서 / II 211
 공소장 (자살방조) / II 27
 (국가보안법) / II 33
 공판절차 재개신청/변호인, 92.4.13. / II 682
 박대순 진술서 / I 627
 진술조서 / I 627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 II 30
 구속영장 / II 28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목록 / II 91
 국과수 감정결과를 배척 무죄선고/변호인 제출자료 5 / II 671
 국과수 장비사진 설명/양후열 / II 558
 국과수 훈령·예규집/국과수 사무분장규정 / II 669
 권범제 증인신문조서 / II 425
 권범제가 상황일지에 표시한 김기설 필적 / II 433
 권범제가 표시한 수첩복사 부분 / II 431
 권영호 진술조서 / I 55
 김기설 검시조서 / I 34
 압수수색영장 / I 41
 압수수색영장 하숙방 / I 42
 유류품 압수조서 / I 40
 유아책자 글씨 압수조서 / I 74
 이력서 압수조서 / I 215
 자취방 수색 수사보고 / I 79
 자취방 압수조서 / I 75
 전민련 수첩 압수조서 / I 202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압수조서 / I 43
 열사 장례식 안내문 / I 88
 김문정 진술서 / I 113
 김병희 증인신문조서 / II 216
 진술서 / I 496
 진술조서 / I 498
 김선택 임의동행 실패 / I 440
 김시중 증인신문조서 / II 149
 김점렬(김기설 고모) 진술조서 / I 633
 김정열 증인신문조서 / II 103
 진술서 / I 634
 김지연 자술서 / I 382
 김진수 탐문(수사보고) / I 439
 김현수 진술서 / I 510
 진술조서 / I 513
 탐문(수사보고) / I 439

김형민 진술서(제1회) / I 505
 진술서(제2회) / I 507
 김형영 공동명의 논문, 91.10.23.) / II 143
 증인신문조서 / II 113
 증인신문조서 / II 135
 증인신문조서 / II 559
 필적 이동비율에 대한 자료(91.11.15.) / II 185
 대전지법 증인신문(이익주)/변호인 제출자료 7-2 / II 674
 대표 변호인 선임서 / II 48
 민수진 자술서 1회 / I 372
 진술서 2회 / I 380
 민원서 송부(예장 총회 명의, 1991.8.30.) / II 79
 민원서 송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 / II 47
 박경민 자술서 / I 116
 증인신문조서 / II 193
 박세용 진술서 / I 215
 박찬수 증인신문조서 / II 156
 방수연 탐문(수사보고) / I 438
 범죄인지서 / I 23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통신(서면) / I 29
 변사자 김기철 일진수사기록 입수 수사보고 / I 25
 변호인 검찰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91.9.20.) / II 92
 검찰증거에 대한 의견(91.9.25.) / II 101
 녹취허가 신청 / II 48
 모두진술 / II 75
 변론요지서(1심) / II 258
 변론요지서(항소심) / II 636
 보석청구서 / II 33
 상고이유 보충서(92.7.13.) / II 750
 상고이유서(92.6.17.) / II 742
 선임신고서(1심) / II 30
 선임신고서(2심) / II 345
 증거제출(필적자료, 91.10.23.) / II 144
 증인신청 1심 / II 145
 참고자료 제출 / II 308
 필적증거 자료 / II 791
 항소이유서 / II 357
 항소장 / II 345
 보석청구서(변호인) / II 33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서울지법 제25부) / II 34
 상고이유 보충서(변호인, 92.7.13.) / II 750

상고이유서(강기훈, 92.6.) / II 734
 (변호인, 92.6.17.) / II 742
 상고장(강기훈, 92.4.21.) / II 727
 (변호인, 92.4.22.) / II 727
 서기선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검사, 92.4.16. / II 696
 서준식 증인신문조서 / II 200
 서준식(참고인) 등 출석요구 불응 수사보고 / I 199
 송국영 자술서 / I 122
 송주수 진술조서 / I 56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검찰제출 필적자료 / I 638
 수사조서(참고인 주소 확인) / I 85
 수사협조 공문 전민련에 전달 수사보고 / I 200
 수사협조 의뢰 / I 208
 수사협조 의뢰(김기철 수첩 제출 요구) / I 199
 시필에 부적합성 문헌/양후열 / II 558
 신문자료 모음 / III 537
 실황조서(김기철 집 등) / I 77
 안해정 제출필적 압수조서 / I 235
 안해정 증인신문조서 / II 533
 안해정이 필적 제공 수사보고 / I 229
 압수물건총목록 / I 4
 압수조서(85년 강기훈 진술서) / I 109
 양후열 제출의 장비 사진 / II 523
 양후열 증인신문조서 / II 544
 업무일지 압수조서 / I 85
 업무일지 제출 확인서 / I 80
 연대 유류품 소재지 압수수색영장 / I 42
 오니시 요시오 필적감정 결과(91.7.18) / I 574
 오오니시 오시오에 대한 인적사항, 검찰, 91.10.23.)
 오오니시 요시오 증인신문조서 / II 231
 증인신문조서 / II 250
 원순용 탐문수사(수사보고) / I 441
 윤석순(홍성은 모) 진술서 / I 631
 윤여덕 진술조서 / I 50
 이 정 자술서 / I 443
 진술조서 / I 444
 이동진 진술서 / I 515
 증인신문조서 / II 212
 이보령 증인신문조서 / II 187
 진술서 / I 371
 진술서 제2회 / I 371

진술서 제2회 보충 / I 372
 진술서 제3회 / I 380
 이보은 동행 실패 수사보고 / I 359
 동행불능(수사보고) / I 440
 자술서 / I 489
 증인신문조서 / II 414
 진술조서 / I 492
 탐문(수사보고) / I 469
 이세용이 의뢰한 이익주의 감정서/변호인 제출자료 7-1 / II 674
 이영미 압수수색영장 / I 159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I 160
 증인신문조서 / II 196
 진술서 / I 163
 진술서 / I 183
 진술조서 / I 193
 이영수 증인신문조서 / II 618
 이재구 증인신문조서 / II 96
 진술조서 / I 94
 이종원 동행보고(수사보고) / I 466
 진술서 / I 466
 이지혜 소재파악(수사보고) / I 438
 자술서 / I 122
 증인신문조서 / II 398
 이창욱 진술조서 / I 62
 이효경 증인신문조서 / II 226
 임 모 탐문(수사보고) / I 453
 임근재 탐문(수사보고) / I 442
 탐문(수사보고) / I 486
 임무영 검거 실패(수사보고) / I 440
 검거 실패(수사보고) / I 486
 소재파악(수사보고) / I 453
 임무영 증인신문조서 / II 208
 진술조서 / I 543
 임철수 소재파악(수사보고) / I 429
 자취방 주인 강병숙 진술조서 / I 86
 장병호 증인 불출석 사유서 / II 93
 증인신문조서 / II 109
 진술조서 / I 72
 장준호 탐문(수사보고) / I 469
 탐문(수사보고) / I 470
 재판부에 의한 검사측 신문제한 내용 / II 588

재판부에 의한 변호인측 신문제한 내용 / II 587
 전현철 진술서 / I 623
 진술조서 / I 623
 정삼경 진술조서 / I 53
 정윤서 자술서 / I 508
 정일부 증인신문조서 / II 161
 정재오 진술조서 / I 59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입수 수사보고 / I 43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신찬석 압수수색영장 / I 200
 증거목록 / II 48
 증거목록 제출 / II 검사 / II 592
 증거목록(김형영의 뇌물수수사건 기록, 92.3.27.) / II 446
 (서울고등법원, 검사신청) / II 16
 (서울고등법원, 피고인 및 변호인 신청) / II 24
 (서울형사지방법원, 검사신청) / II 6
 (서울형사지방법원, 변호인신청) / II 18
 증거목록기록 / II 448
 증거법의 원칙에 관한 판례/변호인 제출자료 6 / II 672
 증거신청 / II 변호인 / II 383
 증거자료(신문기사) 제출/검사 / II 594
 증거제출(1991년 분신·투신사건 관련 신문기사)제출/검찰 / II 444
 증거제출, 전화가입자에 대한 사실조회/검사 / II 669
 진정서[천주교 대교구 정평위(91.5.15) · 이일규(91.6.24.) / II 80
 참고인 진술조서 및 사체검안서 입수보고 / I 36
 참고자료/김형영 / II 310
 참고자료 제출, 공판절차 재개신청에 대하여/검사, 92.4.14. / II 687
 참고자료(5.24 중앙일보) 제출/검사 / II 594
 참고자료(김형영 감정 공정성 검토결과 의견서) 제출/검사 / II 600
 참고자료(이창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제출/검사 / II 595
 최경환 증인신문조서 / II 220
 최규성 진술서 / I 201
 최수미 자술서 / I 376
 2회 자술서 / I 381
 최재인 임의동행 실패(수사보고) / I 476
 자술서 / I 559
 진술조서 / I 560
 탐문수사(수사보고) / I 441
 추가의견서(논고문) 제출/검사, 92.4.9. / II 695
 통역인 신문조서/허초 / II 226
 판결문 1심 / II 321
 고등법원 / II 707

대법원(92.7.24.) /II 777

포장마차 주인 양경숙 진술조서 /I 49

표홍철 검거실패(수사보고)/I 442

표홍철(참고인) 등 불출석 수사보고 /I 124

피고인 보충신문 /II 621

필적 감정 의뢰(강력23110-016452) /I 467

필적 이동비율에 대한 자료(김형영, 91.11.15.) /II 185

필적감정 회보 및 감정서(91.7.4) /I 520

한송흙 증인신문조서 /II 387

한원석 증인신문조서 /II 612

항소이유서(강기훈, 92.2.) /II 365
(검찰, 92.2.18.) /II 355
(변호인) /II 357

항소장(강기훈) /II 345
(검사) /II 345
(변호인) /II 345

현장검증조서 /I 33

형기종료일자 확인(수사보고)/I 553

홍성은 모 편지 /II 609

홍성은 압수수색영장 /I 235
자술서 /I 160
자술서 /I 178
자술서 2 /I 163
자술서, 1회 /I 98
제출 압수조서 /I 107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 /I 96
증거보전신청 재판(1991.5.17.) /I 187
증인소환 철회요청서(홍성은·윤석순, 91.10.19.) /II 133
증인신문조서 /II 165
증인신문조서(재판기일전 증인신문) /I 188
진술조서 /I 99
진술조서 제2회 /I 178
진술조서 제3회 /I 282
책 압수조서 /I 96

각 공판 조서

1회 공판조서 /II 54

2회 공판조서(1심 2회공판, 91.9.11.) /II 86

3회 공판조서 /II 94

3회 공판조서 533

4회 공판조서 /II 102

4회 공판조서 /II 609

5회 공판조서 /II 134

5회 공판조서 /II 611

6회 공판조서 /II 148

6회 공판조서 /II 706

7회 공판조서 /II 164

8회 공판조서 /II 186

9회 공판조서 /II 225

10회 공판조서 /II 248

11회 공판조서 /II 257

증거자료

검찰제출 기타 필적자료

증제 4-90 영어노트 표지(강기훈) /I 639

증제 7-1 수첩(홍성은) /I 640

증제 9-1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 /I 652

증제 9-6 수강신청서(강기훈) /I 653

증제 9-8 낙서(강기훈) /I 654

증제 9-9 화학노트(강기훈, 일부수록) /I 656

증제 9-10 사투의 의의(강기훈, 일부수록) /I 660

증제 9-16 What is(강기훈, 일부수록) /I 662

증제 9-23 자주민주통일수첩(강기훈) /I 666

증제 9-25 전화번호수첩(강기훈) /I 693

증제 9-111~116 혁노맹 재건대회 의사록(일부수록) /I 702

증제 9-117 생일축하카드(강기훈) /I 706

증제 9-125 혁노맹 창건설언문 초안 /I 707

증제 9-126 Two Tac(강기훈, 일부수록) /I 712

증제 11-1 수첩(전민련 제출) /I 717

증제 12-5 대학노트 /I 777

증제 12-6 알림종이 /I 782

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증제 1 터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설) /II 791

증제 2 이력서(김기설) /II 792

증제 3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김기설) /II 793

- 증제 4 대유공전 원고(김기설, 일부수록) /II 794
- 증제 5 승의여전 메모(김기설) /II 798
- 증제 6 출장비 청구서(김기설) /II 799
- 증제 7 성남민청련 상황일지(김기설등) /II 800
- 증제 8 녹취록(김기설 등) /II 811
- 증제 9 속초동우전문대 자료 봉투(김기설) /II 822
- 증제 10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설) /II 823
- 증제 11 한국사회와 자본론강의 책 표지(김기설) /II 824
- 증제 12 속초동우전문대·청주서원대 필적(김기설) /II 826
- 증제 13-1,2 명함(김기설), 고상만 진술서 /II 829
- 증제 13-1 명함(김기설) /II 827
- 증제 13-2 박동희 자술서 /II 828
- 증제 15-1~10 강기훈 옥증편지 /II 830
- 증제 16-1,2 강기훈 연하장 /II 850
- 증제 17 민중당 성동지구당 보고서(강기훈) /II 854
- 증제 18 장미의 이름 책속 메모(강기훈) /II 855
- 증제 20-2 5/8 수첩복사본(최경환 제출) /II 858
- 증제 20-1 5/8 수첩복사본(이효경 제출) /II 856
- 증제 23-1,2 각서(김기설) 및 한원석 자술서 /II 860

국과수 검증서 제출자료

- 증제26의 1, 감정문서접수대장 /II 506
- 증제26의 2, 문서감정처리부 /II 515
- 증제26의 3, 발송대장 /II 450
- 증제26의 4-1, 문서감정서철 표지 /II 457
- 증제26의 4-2, 색인목록 /II 459
- 증제26의 4-3, 기안용지(1991.8.3.) /II 460
- 증제26의 4-4, 감정서(1991.8.3.) /II 461
- 증제26의 4-5, 감정의뢰(1991.7.24.) /II 464
- 증제26의 4-6, 기안용지(1991.7.4.) /II 466
- 증제26의 4-7, 감정서(1991.7.4.) /II 467
- 증제26의 4-8, 감정의뢰(1991.6.27.) /II 470
- 증제26의 4-9, 기안용지(1991.5.29.) /II 472
- 증제26의 4-10, 감정서(1991.5.29.) /II 473
- 증제26의 4-11, 감정의뢰(1991.5.21.) /II 478
- 증제26의 4-12, 감정의뢰(1991.5.28.) /II 480
- 증제26의 4-13, 보충질의(1991.5.27.) /II 481
- 증제26의 4-14, 감정의뢰(1991.5.27.) /II 482
- 증제26의 4-15, 기안용지(1991.5.25.) /II 483
- 증제26의 4-16, 감정서(1) (1991.5.25.) /II 484
- 증제26의 4-17, 감정서(2) (1991.5.25.) /II 487

- 증제26의 4-18, 절취선 일치여부 의뢰(1991.5.24.) /II 488
- 증제26의 4-19, 감정의뢰(1991.5.23.) /II 489
- 증제26의 4-20, 감정의뢰(1991.5.21.) /II 491
- 증제26의 4-21, 감정의뢰(1991.5.25.) /II 492
- 증제26의 4-22, 기안용지(1991.5.17.) /II 494
- 증제26의 4-23, 감정서(1991.5.17.) /II 495
- 증제26의 4-24, 감정의뢰(1991.5.15.) /II 498
- 증제26의 4-25, 기안용지(1991.5.15.) /II 499
- 증제26의 4-26, 감정서(1991.5.15.) /II 500
- 증제26의 4-27, 감정의뢰(1991.5.13.) /II 504
- 증제26의 4-28, 감정의뢰(1991.5.10.) /II 505

김형영 등 뇌물수수사건 관련자료

- 증제27의 1 수사기록 표지 /III 163
- 증제27의 2 수사기록목록 /III 163
- 증제27의 3 문화방송보관 테이프 녹취내용 /III 165
- 증제27의 4 진술조서(조병길) /III 166
- 증제27의 5 녹취서(조병길 신찬석·이송운) /III 172
- 증제27의 6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III 174
- 증제27의 7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 /III 182
- 증제27의 8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III 193
- 증제27의 9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III 197
- 증제27의 10 진술조서(안재국) /III 209
- 증제27의 11-1 수사보고 /III 214
- 증제27의 11-2 필적감정의뢰 회보 /III 214
- 증제27의 11-3 감정서 /III 215
- 증제27의 12 피의자 신문조서(이인환) /III 240
- 증제27의 13 진술조서(고원배) /III 252
- 증제27의 14 진술조서(신찬석) /III 253
- 증제27의 15 감정서(중앙인명감정원) /III 259
- 증제27의 16 피의자 신문조서(이송운) /III 266
- 증제27의 16 피의자 신문조서(이송운) /III 268
- 증제27의 18 공소장 /III 274
- 증제27의 19 피의자 신문조서(이세용) /III 279
- 증제27의 20 피의자 신문조서(양종석) /III 283
- 증제27의 21 피의자 신문조서(신찬석) /III 287
- 증제27의 22 피의자 신문조서(양승호) /III 291
- 증제27의 23 감정서(김형영) /III 298
- 증제27의 24 감정서(김형영) /III 309
- 증제27의 25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직제개정안(김형영) /III 313
- 증제27의 26 피의자 신문조서 1회 (김형영) /III 315

증제27의 27 피의자 신문조서 2회(김형영) /III 321
 증제27의 28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인환) /III 323
 증제27의 29 진술조서(양후열) /III 325
 증제27의 30 피의자 신문조서 3회(이인환) /III 327
 증제27의 31 감정서(김형영) /III 330
 증제27의 32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송운) /III 334
 증제27의 33 피의자 신문조서 3회(이송운) /III 335
 증제27의 34 피의자 신문조서 2회(신찬석) /III 337
 증제27의 35 피의자 신문조서 2회(양종석) /III 341
 증제27의 36 피의자 신문조서 3회(김형영) /III 343
 증제27의 37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세용) /III 348
 증제27의 38 피의자 신문조서 4회(이인환) /III 351

잡지 기사
 강기훈씨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전모(월간 「인권」, 1992.4.) /III 903
 강기훈을 유죄로 만든 판검사들(월간 「말」, 1992.9.) /III 891
 강기훈의 옥중편지/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월간 「말」, 1992.4.) /III 891
 나의 '유서사건' 1년(서준식, 살림, 1992.6.) /III 910
 '명동신화' 사라지는가/언론 상업주의에 부추겨진 필적공방(시사저널, 1991.6.6.) /III 875
 유서대필사건' 재판기(이석태, 경제정의, 1992.3.4.) /III 897
 이 나라의 인권 자화상, 강기훈(서준식, 북음과 상황, 1992.10.) /III 923
 지적 선정주의를 파는 지식인 스타들(월간 「말」, 1991.7.) /III 889
 한국판 트레퓔스사건, 유서공방의 진실(월간 「말」, 1991.7.) /III 883

필적관계 논문
 Eldctrostatic Detection Apparatus(ESDA)による 不明文字の檢出 /III 129
 Signatures Review and a New View /III 138
 문서감식의 연구 /III 3
 미성년자 필적에 관한 연구 /III 125
 불명문자 현출에 대한 연구 /III 106
 아라비아 숫자의 운필형태와 개인별 특성에 대한 연구 /III 121
 한글의 운필형태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III 115
 화상처리를 이용한 필자식별에 관한 기초적 연구(번역본) /III 151
 화상처리를 이용한 필자식별에 관한 기초적 연구(일어) /III 143

수룩된 각종 성명서
 KNCC 인권위 진상보고서(91.6.15) /I 389
 강기훈 사건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91.5.27) /I 292
 검찰기소에 즈음하여(KNCC 인권위 91.7.10) /I 555
 검찰에 협조요청(KNCC, 1991.5.31) /I 353
 검찰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하라(변호인단, 91.6.24) /I 465

검찰의 왜곡수사 방침에 대한 전민련의 규탄성명서 /I 48
 고 김기설 동지 분신행거에 대한 입장(전민련) /I 46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행거에 대한 검찰의...(전민련)/I 47
 공개수사를 촉구하며(천주교 사제단, 91.6.11) /I 368
 구속기소에 대한 입장(전민련, 91.7.13) /I 572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단국대 민주동문회, 91.5.25.) /I 281
 기자회견문(명동성당, 전민련, 91.5.21.) /I 213
 김기설 수첩 내용 주석(전민련, 1991.5.27) /I 295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내는 글(서준식, 91.6.15) /I 388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강기훈, 1991.5.29) /I 339
 날조조작의 의도와 대응(전민련, 1991.5.30) /I 344
 더 이상의 날조조작 중단하고...(전민련, 91.5.24) /I 245
 보도자료(전민련, 91.5.22.) /I 219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면!!(서강대 사학과 학생회) /I 71
 사제단의 대응경위(천주교 사제단 91.6.15) /I 420
 서울지검에 공개수사협조요청서 발송(KNCC, 91.5.23.) /I 241
 성명서(KNCC, 91.5.23.) /I 242
 왜곡날조에 대한 정의의 투쟁을 선언한다(전민련, 91.5.27.) /I 293
 유서대필 조작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91.5.20) /I 206
 자진출두에 즈음하여(강기훈, 91.6.24) /I 451
 전민련 논평(1991.5.28) /I 311
 전민련에 협조요청(KNCC, 1991.6.1) /I 354
 정부 및 검찰의 왜곡날조...(범국민대책회의) /I 69
 천주교 정명위에 보낸 글(서준식, 91.6.19) /I 426
 추기경 면담요청서(서준식, 91.6.9) /I 363
 필적감정결과 설명회(KNCC 91.7.22) /I 626

Appeal on behalf of Kang Ki-hun(amnesty international, 92.4.) /II 728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400인 선언(92.4.16.) /II 699
 검찰은 은폐해온 고 김기설씨의 필적을 공개하고...(공대위, 92.4.13.) /II 685
 검찰의 감정비리사건 축소은폐수사를 규탄(9개단체, 92.2.18.) /II 351
 검찰의 축소·은폐수사를 규탄한다(강기훈 공대위, 92.2.24.) /II 354
 국과수 허위감정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16개 단체, 92.2.14.) /II 350
 기자회견문:강기훈 공대위 결성에 즈음하여(92.2.24.) /II 353
 논평:대법원의 판결을 보며(정의구현전국사제단, 92.7.24.) /II 788
 성명서(KNCC 인권위, 91.12.20.) /II 343
 성명서(강기훈 공대위, 92.4.20.) /II 726
 성명서:강기훈 상고심 기각에 대하여(KNCC 인권위, 92.7.24.) /II 789
 성명서:국과수 허위감정사건에 대한 입장(KNCC, 92.2.12.) /II 347
 성명서:김형영씨 석방에 대한(KNCC 인권위, 92.9.14.) /II 790
 성명서:범죄자는 ... 검찰과 법원이다(강기훈 공대위, 92.7.24.) /II 787

- 유서사건 공정재판 촉구(92.4.15.) /II 704
-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강기훈 공대위, 92.3.11.) /II 372
- 탄원서(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92.7.16.) /II 776
- 탄원서(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92.7.21.) /II 776
- 허위감정 제보자 조병길씨 법정구속에 대한 논평(전민련, 92.2.20.) /II 352
- 강기훈씨 추가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1991.8.22.) /II 46
- 검찰은... 변호인에 대한 압력을 철회하라(변호인단, 91.7.5) /II 36
- 성명서:1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91.12.20.) /II 342
- 성명서:강기훈씨 1차공판에 즈음하여(KNCC 인권위, 1991.8.28.) /II 53
- 성명서: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 (KNCC 인권위, 91.12.5.) /II 319
- 성명서:이번 재판은~(전민련·후원회, 91.8.28.) /II 77
- 진정서:목회자연명 (예정 강기훈 대책위 인권위) /II 320

기타자료 소식지

- 강기훈 부장을 즉각 석방하라(재판투쟁 속보 준비회) /III 479
- 김형영 뇌물사건 신문모음 /III 353
-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III 501
- 재판투쟁 속보 1호 /III 483
- 재판투쟁 속보 2호 /III 491
- 재판투쟁 속보 3호 /III 493
- 재판투쟁 속보 4호 /III 497
- 진실은 승리한다(회보시작지 1호) /III 445
- 진실은 승리한다(회보시작지 2호) /III 471

필리핀계 논문

Electronic Detection Apparatus(EDA)의 사용
 Signatures Review and a New View All 131

한국인간의 연구
 A Report on behalf of Korea KI-Business Intersession, 92.4.15.
 디지털 필리핀 판권 연구
 필리핀의 필리핀 판권 연구
 이라비아 판권의 필리핀 판권 연구
 판권의 필리핀 판권 연구
 판권의 필리핀 판권 연구
 판권의 필리핀 판권 연구

수확의 지름길

KNCC 인권위 긴급보고서(91.12.15) /I 325
 강기훈 사건구속의 필리핀 판권 연구
 검찰기소에 즈음하여(KNCC 인권위, 1991.8.28.) /II 53
 검찰에 영조요청(91.12.15) /II 319
 검찰은... 변호인에 대한 압력을 철회하라(변호인단, 91.7.5) /II 36

『유서사건 총자료집』 제3권 기타자료

1993년 7월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